

녹색연합등록번호

01-07-12-02

군사격장 주변 주민 환경실태 조사 보고서

# 사선에 선 마을



GREEN  
KOREA  
녹색연합

군 사격장 주변 주민 환경권 피해 실태 조사 보고서  
**사선에 선 마을**

펴낸이 박영신

펴낸날 2007년 12월 1일

펴낸곳 녹색연합

글쓴이 고이지선, 서재철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113-34

전화 02 747 8500

팩스 02 766 4180

이메일 [greenkorea@greenkorea.org](mailto:greenkorea@greenkorea.org)

웹사이트 [www.greenkorea.org](http://www.greenkorea.org)

\*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격장 주변 주민 환경실태 조사 보고서

# 사선에 선 마을

## 버 리

들어가며	3
피해실태조사 개요	5
사격장 주변 주민피해실태	10
국내 사격장 현황	11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유형	12
주요사격장 피해 사례 조사	16
다락터 사격장	16
미여도 사격장	23
용천 사격장	29
안흥 종합시험장	35
황룡 사격장	40
낙동 사격장	48
비승 사격장	54
영평 사격장	59
주요설문조사 결과	70
국가 안보와 주민 환경권	86

\* 본 자료집은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들어가며

군사 훈련은 대규모 환경파괴를 동반한다. 환경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군사 시설에 대한 환경 관리와 규제 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그러나 사격장은 군사 훈련에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유로 여전히 사회 관심 밖에 있다. 어차피 조성된 사격장인데 토양 오염, 토양 유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대규모 사격장 안전 지역으로 조성한 곳에 잘 보존된 생태를 보면서 군사 시설이 생태계 파수꾼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격으로 인한 환경문제는 사격장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 진동에 노출되어 있고 해상 사격장의 경우 어업 활동도 제약을 받아 생계를 위협받는다. 뿐만 아니라 오폐수 사고가 끊이지 않아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

녹색연합이 사격장 주변 피해 실태를 조사 중이던 지난 11월 12일, 경기도 포천시 연곡리 사격장 반대추진위원회는 트랙터 9대로 사격장 진입로를 막았다. 6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전차 사격 훈련이 재개된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주민들이 사격장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면서 훈련까지 중단시킨 것은 그 동안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되었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없었고 오히려 사격장을 확장한다고 해서 주민들은 분노했다.

비단 연곡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의 사격장 주변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피해에 노출되었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소외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군사 시설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당연시할 수는 없다.

환경권은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게 환경권은 요원한 이야기다. 군사 시설인 사격장 주변 환경권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주민 환경권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은 국내 전체 환경권 실태의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군의 인권문제는 주로 군인에 의한 범죄문제에 대한 관심에 쏠려왔다. 그러나 이제 주민의 환경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심지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이 보고서는 첫째, 국방부 등 정부 정책의 개선 요구와 둘째, 각 지역의 피해 주민들 간 자료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는 사격장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개선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군 부대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1년 동안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실태를 조사 한 결과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았다. 군사 시설 관련 사안은 늘 그렇지만 주민들이 피해 대응을 하려고 해도 근거 자료로 내놓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다른 지역 실태 조사 결과와 주민 설문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다른 마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어떤 해법을 사용했는지 서로를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가 생명과 재산의 위협에 노출된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첫걸음이자 정부가 문제 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제1장

## 피해 실태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사격장을 만들고 군인을 훈련시킨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일뿐 아니라 최근 심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군비 경쟁에 동참하면서 군사 훈련의 강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군사 시설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90년대 초반부터 생겨났으나 주로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국한되었다. 국민적 관심이었던 때 향리 미 공군 폭격장은 주민 저항으로 결국 사격장이 폐쇄되기도 했다.

사격 훈련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은 주변 주민들이 입게 된다. 국가 안보에 대한 이익은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 피해는 일부 피해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피해 주민 입장에서 분명히 부당하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이 농어민, 고령자로 사회적 소수자이다. 그래서 계속 피해를 당한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 수 십년 동안 아무 보상도 없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분노와 소외감은 극에 달해 있다.

군사 시설로 당당한 위상을 자랑하던 사격장의 모습이 아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사격장 관련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현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대책위원회는 사격장 성격에 따라 소음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확장, 이전 반대를 내걸기도 한다.

- 소음 관련 대책위 구성 지역 : 웅천, 미여도, 여주, 상주, 안흥, 담양
- 이전, 확장 대책위 구성 : 직도, 파주 무건리, 영월, 도창리, 양덕원





국방부는 주민의 환경권, 재산 피해 등에 대해 전체 실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증언과 설문을 통해 피해 실태를 종합하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둔다. 사회적으로 사격 피해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주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 2 조사 개요

### 1) 조사 대상 선정

전국에 있는 훈련장 중 민원 제기가 많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공군 사격장은 전투기 비행 소음과 폭격 소음으로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육군 훈련장 중에는 담양 전차포 사격장과 연천, 포천 지역 대규모 종합 훈련장을 선정했다.

### 2) 자료 수집

관련 자료는 언론 기사 검색, 참고 문헌, 국정감사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주민 피해에 관한 자료임에도 군사 기밀로 분류된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다른 정부 보고서에 인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군사 시설에 관한 자료 공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조사 항목 선정

현재 사격장 주변 주민 환경권에 대한 관심은 주로 소음과 진동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소음을 중심으로 1차 현장 조사를 통해 몇몇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유형을 선정하였다.

주민 환경권 피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군부대 등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고자 설문 항목을 선정했다. 주민 설문조사 항목은 김포 공항과 광주, 군산 공항 피해 실태 조사 문항 등을 참고하였다.

#### 4) 조사 개요

- 2007년 3월 ~ 5월 : 조사 대상 사격장 선정
- 2007년 5월 ~ 7월 : 1차 현장 조사
- 2007년 8월 ~ 11월 : 심층 조사와 주민 설문 조사
- 조사원

고이지선, 허승은, 최위환, 박효경, 유소영, 이선화, 이석제, 유상진, 문은정,  
김경미, 오김현주, 고정은, 김지용, 박혜영, 배제선, 이재구



지난 10월 24일,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동호리 주민 대상 주민 설문 조사 설명 모습

## 제2장

#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실태

# 1. 국내 군 사격장 현황

전국에는 1,453개 군 훈련장(사격장)이 있다. 거의 대부분 훈련장에서 소음과 유탄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사격장 폐쇄와 이전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군사 시설에 대한 자료는 출처마다 다른 것이 보통이다. 그만큼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를 맞추는 일은 쉽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군별	계	소화기	직곡사화기	항공기	기타
계	1,453	1,164	255	14	20
육군	1,316	1,058	233	5	20
해군	57	44	13	-	-
공군	65	56	1	8	-
주한미군	15	6	8	1	-

출처 : 문석호의원 법안 \_국방위 \_검토보고서

한국 공군 사격장 현황						
구분	안전구역		사용탄약	비고		
	확보기준	확보면적	훈련탄			
훈련탄 사격장	여주	257만평	135만평	소형 훈련탄 (BDU -33)	내륙사격장	한국공군 전용
	낙동 웅천	257만평 385만평	149만평 341만평	소형훈련탄, 로켓 모의탄, 기총 모의탄		
	미여도	4000평	4000평		해상사격장	
	실무장 사격장	직도	4만6000평	4만6000평	훈련탄/실무장	
	필승	1861만평	1861만평		내륙사격장	한미 공동사용

자료 : 국방부 (공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_검토보고서)

## 2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 유형

국방부 민원 백서(2006)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은 모두 246건으로 소음 및 유탄 피해 보상요구가 77건, 훈련장 이전 70건, 사격장 설치 반대 53건, 재산권 보상 34건, 사유지 점용 보상 1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당장 나타나는 소음 피해와 유탄 피해 보상이 가장 많고 이런 피해에 대한 근본 대책 요구로 훈련장 이전과 사격장 설치 반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사격장 설치가 결코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점점 사격장 이전, 확장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사격장 관련 사안을 보면 소음 소송을 줄을 잇고 있고, 파주 무건리 훈련장, 포천 영평, 원평 사격장, 직도 사격장 등 이전,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 과정에서 주민 피해 보상이나 실태 조사를 통해 주민에 최소한의 피해를 끼치는 방안이 강구되기 보다는 보상금으로 주민을 이주시키거나 지역 지원금을 지원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경우가 많았다.

외부의 적에서 국민을 보호한다는 군대가 오히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 신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불안감 등도 주민들의 삶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 광범위한 환경권 피해 일으키는 소음, 진동 난청, 스트레스, 불안감 유발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대부분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주민 환경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소음, 진동 문제이다. 소음으로 인해 전화 통화나 일

상 대화가 힘들 정도이고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경우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현재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007년 현재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에서 사격장 소음 소송은 웅천, 매향리, 미여도, 안흥, 여주, 등 5군데에서 진행 중이다. 소음 소송에서는 소음도를 측정해 '수인한도'(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한다. 그러나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귀찮음'뿐 아니라 난청이 생겼을 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난청이 되었을 때 사고 발생 사이렌을 듣지 못해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원인은 무엇으로 볼 것인가. 소음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고 불안해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어렵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과제이다.

많은 주민들이 사격 훈련 중 야간 사격이 가장 심하다고 호소한다. 야간 훈련을 위해 밤에 전차로 이동하거나 밤에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경우에는 낮보다 최소 2배 이상 시끄럽게 느껴진다고 한다. 그리고 사격 훈련보다 더 시끄러운 것은 불발탄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노천에서 터트릴 때인데 아주 강력한 폭탄을 떨어트리는 것만큼 심각한 진동과 소음을 동반한다.

## 토양 오염 - 오염 확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 환경법에서 화약류가 오염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사격장의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국방부가 실시한 '사격장 토양오염조사 및 오염 확산 방지대책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 결과 표본 조사한 9개 사격장 모두에서 한 가지 이상의 중금속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강원도 춘천의 한 개인공용화기 사격장에서는 우려 기준을 최대 140배까지 넘어서는 1만4천mg의 납이 토양 1kg에서 검출됐고, 경기도 양덕원의 비승사격장에서는 우려 기준의 30배인 45mg/kg의 카드뮴이 나왔다. 소규모 소총사격장의 경우에는 납과 구리등과 같은 중금속이, 전차포 사격장의 경우에는 포탄 내 충전물인 화약물 질이 산화되지 않고 사격장 피탄지 주위에 산재하여 주 오염원으로 검출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특히 일부 사격장의 오염물질이 주변환경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기도 김포의 한 개인공용화기 사격장에서는 지하수가 흘러가는 방향의 사격장 밖 토양에서 오염기준 이상의 납과 구리가 검출됐고, 강원도 영월의 비행 실탄 및 훈련탄 사격장 안 개울물에서는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화약성분인 헥사하이드로-드리니트로트리아진(일명 RDX)이 고농도로 나왔다.

국내 토양환경보전법 상에는 화약류가 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인 군 사격장의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된다.

사격장 토양오염에서 중요한 것은 피탄지 토양 오염이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현재 비승 사격장, 영월 필승 사격장 등은 상수원 내에 위치해 있어 이런 위험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토양 오염 확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사 자료를 공개해서 토양 오염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없도록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매항리 사격장 등에서 보듯이 현재 토양 오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민간으로 시설이 반환될 때 오염 문제는 다시



중요한 화두가 된다. 수 십년 동안 중금속에 오염된 땅을 반환받을 때 어떻게 환경정화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향후 반환과 활용을 생각한다면 정기적으로 불발탄과 유탄 등을 수거하고 토양 오염 확산 방지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 주민 생명 위협하는 오폭 사고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한 번 생기면 가장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이 오폭 사고이다. 지난 2000년 매향리 사격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생긴 계기도 2000년 오폭 사고로 주택이 파손되고 아이를 유산한 사건이었다. 외국의 경우, 2003년 푸에르토리코 비에케스 섬에 있는 미 해군 훈련장이 폐쇄된 계기 역시 오폭으로 현지 청년이 숨진 사건이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의 훈련장 폐쇄는 오폭 사고에서 시작되었다.

공군 사격장이 있는 마을의 경우, 대부분 오폭,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기총사격장, 전차포 사격장에서도 유탄이 주택가로 날아와 천장이나 비닐 하우스를 뚫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군은 최근 사격장 민원 증가로 실탄 대신 훈련탄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공군 자료에 따르면 실탄은 2~3군데 사격장에서만 사용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수 백미터 상공의 전투기에서 실탄이든 훈련탄이든 떨어트리고 그걸 우연히 맞게 된다면 안 죽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실탄이 아니어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생명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사격장은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확히 훈련 종류에 따라 불발탄이나 산탄의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조사가 안 되어 있다. 주로 국방, 군사시설 사업의 경우 1km 이내는 영향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격장의 규모와 훈련 종류에 따라 현장을 반영한 범위를 설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 기타 - 탱크 이동시 도로 훼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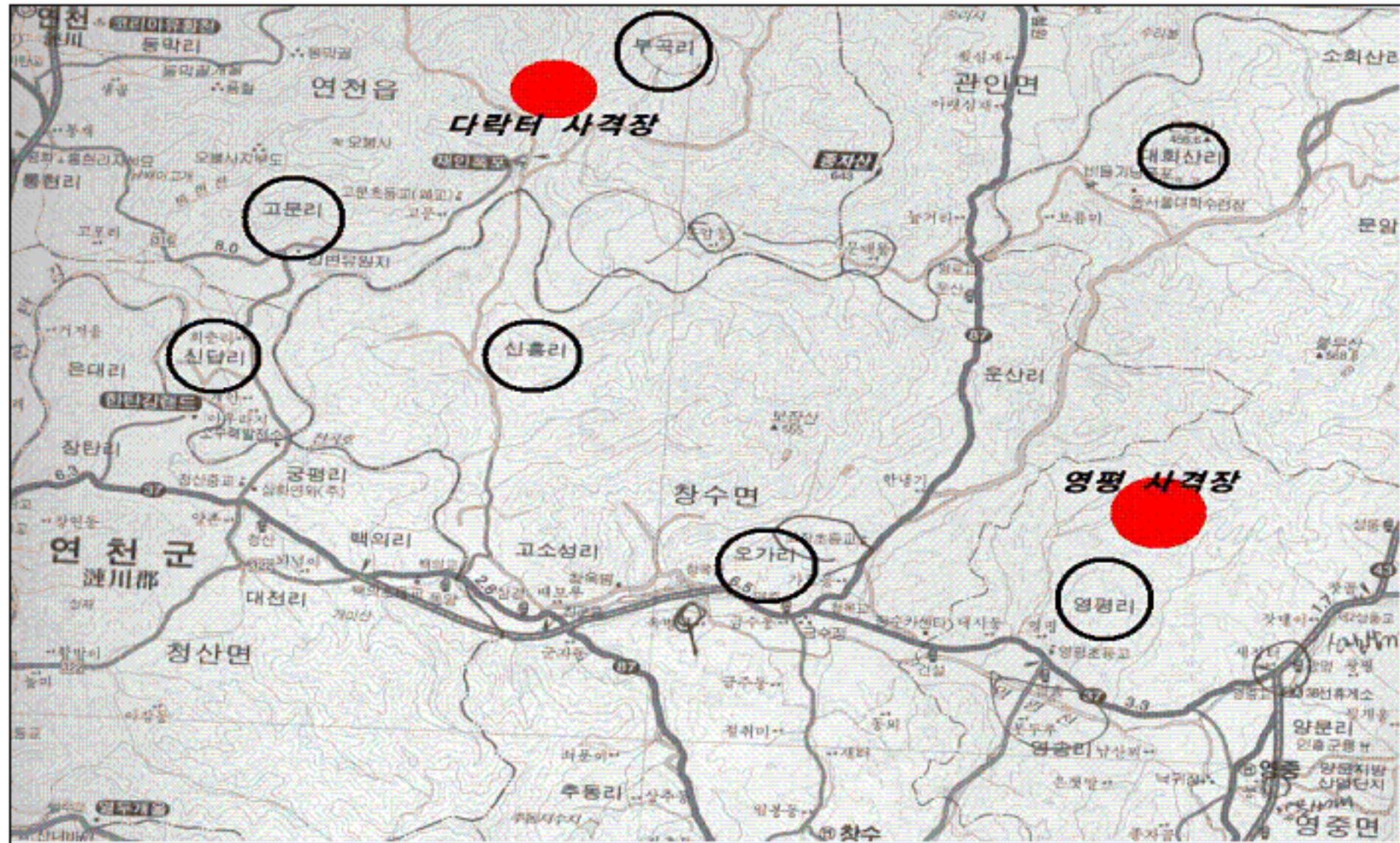
탱크나 트럭 등 군사 훈련을 위해 이동할 때 도로가 더러워지고 무게를 견디지 못해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도 많다. 주민들에게 일상 통로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의 불편함은 아주 크다.

## 3. 주요 사격장 피해 사례 조사

### 1) 다락터 사격장

이름	다락터 사격장
행정구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포천시 관인면 등
면적	3,500만평
역사	1957년 사용 시작
관리주체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주한미군
훈련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최대 포 사격장(동양최대의 사격장)</li> <li>· 육군, 주한미군, 국방과학연구소 사용</li> <li>· 155mm, 박격포, 발칸포, 신형 화력시험, MLRS(다연장전술로켓),</li> <li>· 우리나라 포병 사격의 1/3 소화, 13군데 발사대</li> </ul>
마을과 이격거리	연천읍 고문리와 피탄지(부곡리) 5Km 떨어져 있음.
주변 생태계	생태계와 경관이 우수한 한탄강이 사격장을 통과하고 있으며 한탄강 댐 건설 계획으로 사격장 피탄지 수몰 예정. 재인폭포, 한탄강 트레킹와 래프팅 코스와 인접해 있다.
피해 영향권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 / 연천군 전곡읍 고문리 / 신답리 / 부곡리 등
주변 다른 사격장	영평사격장, 연천 사격장, 승진 사격장, 원평 사격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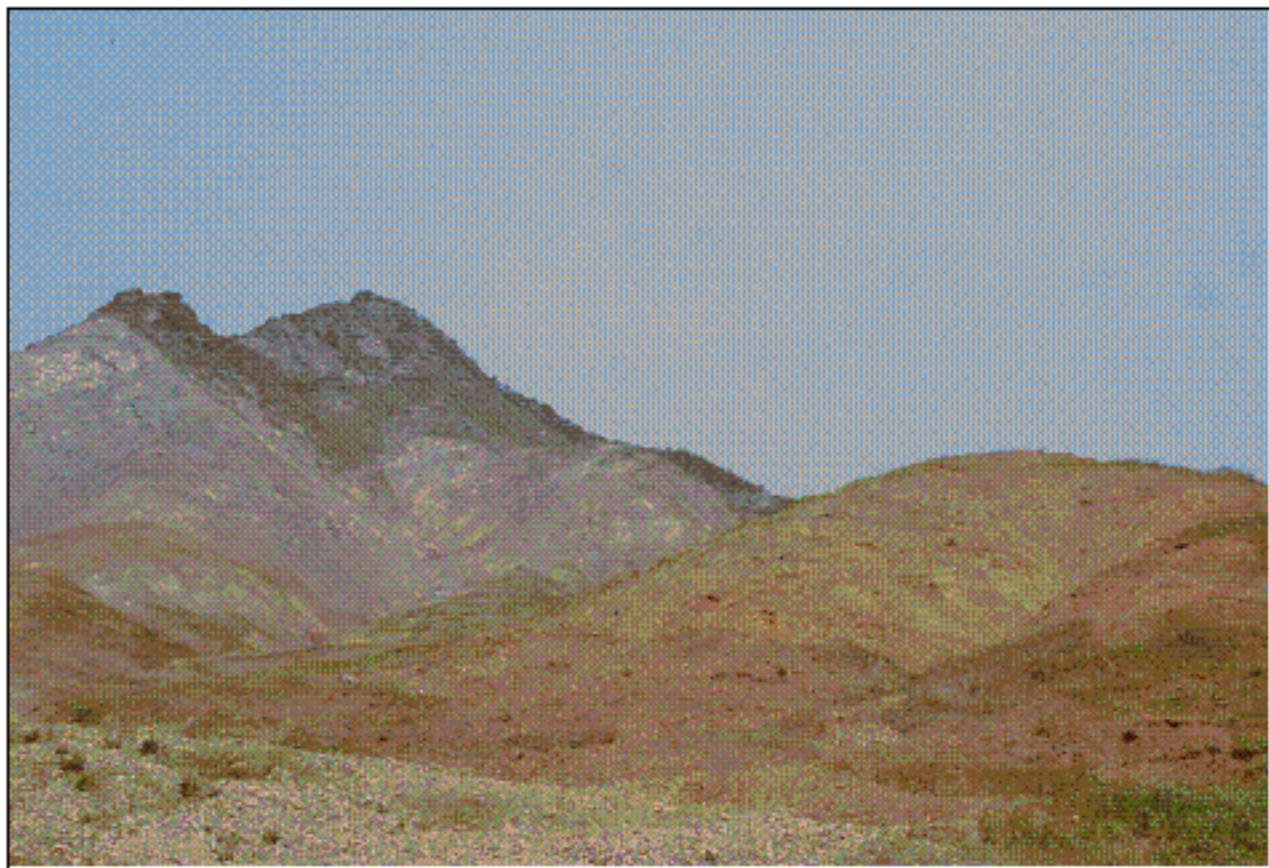






**다락터 사격장**은 다락대 사격장으로도 불리는데 동양 최대의 훈련장이라고 한다. 이 곳은 한탄강이 통과하고 산림 대부분이 7등급 이상을 자랑하는 생태계 우수 지역이다. 인근의 보장산, 종자산은 생물종이 아주 다양하다. 포천과 연천의 경계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전곡읍 신답리에 포를 쏘는 포마당이 있고 고문리에 피탄지가 있다. 종리에서 재인폭포까지가 민간인 통제 구역이다.



다락터 사격장 내 종합 사격장 피탄지 모습. 산 대부분이 수십년 간의 사격 훈련으로 깎여 내려 민둥산이 되어 있다

사격 훈련을 하는 군 부대는 연천읍 고문리 마을에 하루 사격 훈련양을 통보하지만 보통 이번 주에는 몇 발 사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이고 훈련 시간 등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야간

훈련도 하며 10시 이전에는 완료하는 편이라고 한다. 탄피 수거는 거의 안 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생계형으로 탄피, 불발탄 등을 수거해 고철 장사를 하고 있다.

과거에는 연천군 고문리, 포천시 관인면 중리 등에 포탄이 날아와 마을로 떨어지는 사고는 1년에 몇 차례 이상 벌어졌다. 과거에는 고철 장사를 위해 사격장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로 죽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저 나무 건너편에서 죽으면 보상 받을 수 없다고 ... 그래서 시체를 끌고 마을 쪽으로 건너오기도 했었지..”

그만큼 사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 주민들이 사격장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알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다행히 오폭이나 불발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거의 없다.

2002년 한탄강 댐 건설을 위한 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격장 피탄지가 수몰되어도 생태계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몇 가지 저감 방안을 적었다. 그러나 댐이 생기게 되면 피탄지가 물에 잠기게 되어 다량터 사격장 피탄지 하단에 펼쳐진 광범위한 역새와 다년생 초본군락이 하고 있는 1차 여과작용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피탄지의 위해한 오염물질은 담수호에 모두 용해되어 댐 내부와 하류의 하천 생태계에 홍수기의 여러 오염원과 사격장 위험 성분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것이다. 특히 2002년 국방부 조사에서 포격 목표지점을 중심으로 한 일부 토양에서 미국 EPA(환경청)가 C급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화약물질인 TNT와 RDX가 고농도로 검출되었다.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탄강 댐 건설 동

의하였으나 사격장과 댐이 공존하기에 안전상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댐 본체 위로 후방의 여러 발사대에서 쏘아 올린 연 중 수십만 발의 포탄들이 날아다녀 콘크리트 구조물인 댐 본체에 소음과 진동으로 물리적 충격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댐의 수명이 단축되고 국가 기간 시설의 안전에 가장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포 사격은 그 위력이 엄청나서 한 번에 50~60발씩 쏠 때는 먼지 때문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이 곳은 주한미군, 한국 육군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용하고 있다. 국과연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 이곳에서 시험 발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대부분 군 훈련장이 황토로 되어 있어 탱크와 차량 이동 시 도로가 황토로 뒤덮이고, 특히 우천 시에는 빙판길보다 미끄러워 수많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 발생**한다. **연천군 내에서 연간 6000여 대의 탱크 및 중장거리포가 이동**한다고 한다.

## 주민 인터뷰

다락터 사격장 현장 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사격장에서 고철을 수집하던 마을 주민을 만났다. 50세가 넘는 A 씨는 예전에는 사격장에서 고철을 수집하던 게 별이가 엄청 좋았다면서 요즘도 하루에 20만원 정도 별이는 된다고 한다. 일주일에 3~4일 정도 일하는데 지금까지 이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딸을 대학에 보낼 수도 있었다.

“예전에는 별이가 좋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줍는 바람에 사고가 많이 생겼지만 계속하는 사람들은 불발탄을 구분할 수 있어서 위험하지 않아”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다보니 전문가가 되어 어떤 포탄을 만지면 안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사격장 피탄지를 설명하였다. 현재 피탄지는 장미, 홍수 등으로 많이 쓸려 내려와 원래 지형에서 10m 이상 흠이 쌓였다. 따라서 그 안에 탄피가 묻혀 있는 것이 더 많을 것이며, 과거에 사격용으로 갖다 놓은 트럭이 흠에 잠겨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중금속 오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화약 성분으로 보이는 빨간 색 지점을 가리켰다.

## <군인도 무릎 꿇은 신답리 이행각서 >

**이행각서**

김천 우리 8097 부대에서는 아래와 같이 훈련을 하는 동안 마을주민은 시속 10km이하로 훈련하여, 경계 또는 훈련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토사가 유출될 경우 아래사항을 이행하여 훈련장 주변 시공차질 및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으로 약속합니다.

1. 도로변 토사 제거
2. 급수차량 이용하여 도로 청소

○ 훈련기간 : 11월 중 일부터 ~ 월 ~ 일까지  
 ○ 훈련장소 : 24번 ~ 25번지  
 ○ 지휘관 연락처 : 010-5285-1103

2017년 11월 10일

서약인  
 부대명 8097부대  
 지휘관 김광현

신답리 서광현 서장 귀하  
 (016-2656-3048)

**연습탄 사격 관련 안내문**

**□ 안내글**  
 안녕하십니까 마일 주연 여러분 07년도 어느새 일등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더불어 아니라 이번 11월 14일(09:00~18:00)에 포병 연습탄 사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민홍보과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해당지역에 출입을 통제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격관련 내용**

- 사격일자 : '07. 11. 14(수), 09:00 ~ 18:00
- 사격 피탄지역 : 다락터 피탄지
- 사격부대 : 육군 8059부대
- 기타사항
  - 해당 일자 및 지역에 대하여 정동 활동 / 출입을 통제
  - 총 9개소에 대한 당일 주민 출입제한 지역 안내 통제인원 배치
  - 총 16톤에 대하여 주민이리문제 적당적인 용의 당부
  - 기타 문의사항 : 육군 8029부대 대위 김도희(010-0301-0418)

위 사항에 대하여 광고하시어 안전한 사격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신답리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공동 사용하는 다락터 사격장 피탄지 밖에 있다. 그러나 신답리는 주민들이 '포마당'이라고 부르는 포를 쏘는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차들이 이동하게 된다. 주민 설문 조사 결과 이곳은 소음과 진동 등 훈련장 피해의 일반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지만, 전차 이동으로 도로가 더러워지는 것을 더 많이 지적하였다. 시끄러운 건 참을 수 있어도 길 더럽히는 건 너무 싫다는 것이다.

20년째 마을 이장을 하고 있는 서광현 이장은 몇 년 전부터 훈련 부대와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이행각서는 이동, 훈련 과정에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다. 서광현 이장은 훈련 전 반드시 이행각서에 서명을 받고 지키지 않을 경우, 다음 훈련부터 해당 부대의 훈련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 2) 미여도 사격장

이름	미여도 사격장
행정 구역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면적	미여도에서 반경 5마일
역사	1978년
관리주체	광주 제1전투 비행단
훈련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침 8시 30분 ~ 22:00, 야간 훈련은 6시 ~ 10시까지</li> <li>· 2006년까지 토요일 오전까지 사격훈련 했었음.</li> <li>· 보통 1500피트 상공 (4km) (타 지역 2500피트 상공)</li> <li>· 훈련탄을 사용하지만 소음에는 별 차이가 없음</li> </ul>
마을과 이격거리	해안에서 4km
주변 생태계	동백꽃으로 유명한 선운사가 차로 20분 거리에 있다. 폭격장인 미여도가 바라보이는 동호 해수욕장은 고창 지역에서도 큰 해수욕장이다. 이곳에는 500년 이상된 노송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유명하다. 깨끗한 해수욕장과 해당화 군락지, 명사십리가 조성되어 있다.
피해 영향권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방축리/ 심원면 주산리, 만돌리, 연화리 동호 초등학교, 해리 초중교
주변 다른 사격장	군산 직도 사격장에서 45km 떨어져 있음

미여도는 전라북도 고창 동호해수욕장에서 4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무인도이다. 해안가에서 눈으로 보이는 이 섬이 공군 폭격장이다. 이곳은 지난 78년부터 사격장으로 사용했지만 사회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12월 마을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도 군 부대에서 그 동안 이 곳 사람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곳으로, 소음 측정 등 주민 생활에 미치



미여도 곳곳에 포탄들이 박혀 있고 주변 바다 속에 투하된 탄들이 발견된다

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더욱 필요한 곳이다.

직접 배를 타고 미여도 폭격장 현장을 들어갔더니 전체 섬의 1/10 정도가 파헤쳐져 섬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훈련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토양 유실이 덜 해보이지만 탄피나 훈련탄들이 섬 곳곳에 쌓여 있고 일부는 바다 속에 떨어진 것이 눈에 띄었다. 야간 비행을 할 때는 비행기 1대 당 조명탄 20개 정도를 사용하는데 그대로 바다로 떨어지고, 조명탄을 매달고 있던 길이 10m 의 낙하산이 바다로 떨어져 **수중 생태계를 숨쉬지 못하게 한다.** 주변 해양 생태

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해양수산부 지정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뽑힐 만큼 어촌의 향기를 가득 지닌 마을이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의 어업 활동은 사격 훈련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훈련을 할 때는 미여도 근처 반경 9.2 Km 이내 해역이 출입금지구역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바로 앞 바다로 마음 놓고 고기 잡으러 나갈 수도 없고 기상이 악화되어도 피항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









동호 마을 포구 모습. 마을 주민 대부분 생계가 어업이다

### 소음과 스트레스 - 임신도 힘들 지경

김모씨는 지금 5살, 4살 자식이 두 명이다. 임신이 힘들어 고창 시내에 나가 2년간 살면서 아이를 임신하고 돌아왔다. 아마도 소음이 심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방부에서 실시했던 **2002년 소음 측정 조사 결과**(소음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 이곳은 태백 영월 사격장과 함께 소음도 80 웨클(WECPNL) 이하로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어업 활동을 할 때, 가정에서 피해가 있는데 조사가 잘 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원고 3177명이 원고로 참여한 1차 **소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탄피 하나를 주워서 공군에 갖다 주면 3천원 씩에 산다고 한다. 어업을

하다가 조명탄에 달려 있던 낙하산을 줍기도 하는데 건져 올리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낙하산이 전체 퍼지면 총 길이가 10m 에 달하는데 이게 바다에 떨어지면 주변 조류가 바뀔 정도라고 한다.



해안가에서 4Km 정도 떨어진 미여도는 폭격 훈련으로 토양이 유실되면서 섬 면적이 축소되고 있다

**2005년 7월**, 미여도 바로 옆 죽도에 오폭으로 비닐하우스 일부 피해가 있었다. 박모씨(60)는 13일 오후 5시 반쯤, 집 앞 비닐하우스에 **훈련탄 2발이 떨어져** 심한 화약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라 고창경찰서 해리 지구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비닐 하우스 피해자는 당시 공군에서 나와서 화편 등을 수거해 갔을 뿐 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 김형균 (미여도 소음 대책위원회 위원장, 43세)

작년 2006년 12월부터 소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민 민원이 시작되면서 비행 선로가 변경되기는 했지만 공군의 기본 입장은 '소음은 어쩔 수 없으니 주민들이 참아달라'는 것이다.

2002년 국방부 용역 결과 이 곳의 소음 정도가 "주거에는 피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린다고 했다. 지난 11월, 공군에서 마을에 나와 소음 측정을 했으나 비행 고도를 평소보다 훨씬 높였기 때문에 정확한 소음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11월 측정 결과 최고 93dB, 최저 73dB, 평균 83dB 이지만 주민들 체감 소음은 100dB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저녁 시간에도 조명탄을 사용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편히 쉴 수 없다고 한다. 김형균 위원장은 조명탄 사용할 때마다 카메라로 촬영하고 며칠 몇 시에 훈련한 것인지 기록해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곳에서 태어나 다른 곳에서 살다가 마을로 다시 돌아온 후 소음 문제에 대해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자살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를 따져온 터였다.

공군 폭격장인 미여도는 이곳의 유일한 섬이다. 어업 도중 강풍이나 기상 악화시 잠깐 대피할 수 있는 섬이 사라지는 것이다. 피항 할 곳이 없어져 버렸다.

### 3) 응천 사격장

이름	응천 사격장
행정 구역	충청남도 보령시 응천읍 소항리
면적	기총사격장(육상)과 폭격장(황죽도)로 총 341만평
역사	1996년 12월 설치
관리주체	해미 20전투비행단
훈련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습탄 사용</li> <li>· 공군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등이 주 5일 하루 3~5시간 포탄 투하 및 기총 사격</li> <li>· 주간에는 육상 사격장에서 연습탄 투하 및 연습 기총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해상 사격장인 황죽도에서 조명탄 투하 훈련 실시</li> </ul>
마을과 이격거리	육상 사격장은 소항리에서 200m, 폭격 연습하는 황죽도는 장안 해수욕장과 1.2km 떨어짐.
주변 생태계	환경부는 2005년 10월, 독산리~황교리에 걸쳐 있는 소항사구(면적 0.121km <sup>2</sup> , 길이 약 2km, 평균 폭 60m)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안사구의 전체 구간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구로 면적은 좁지만 전형적인 사구식생의 형태를 보여준다. 소항사구는 육상 사격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바로 앞 바다에는 황죽도가 있다. 신비의 바닷길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차로 10분 거리.
영향권	응천읍 소항리, 교항리, 독산리, 죽청리, 노천리 등

국내 가장 유명한 사격장이라고 하면 2005년 폐쇄된 매항리 미 공군 폭격장일 것이다. 주민들의 끈질긴 저항으로 결국 폐쇄된 이 곳은 50년이 넘는 전투기 비행과 폭격으로 주민 피해가 컸던 곳이다. 매항리 주민 중 한 명은 “응천 사격장을 갔을 때 깜짝 놀랐다. 매항리와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다. 바닷가 마을이 있고 마을 앞 바다 무인도에 폭격하는 장면이 매항리를 연상케 했다”고 회상했었다.



웅천 사격장은 소음 소송에서도 높은 배상액을 받을 만큼 소음 피해가 심각한 곳이다. 매항리와 웅천 사격장이 닿은 점은 해안 마을에는 육상 사격장이 있고, **앞 바다 무인도에 폭격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민가와 가까운 사격장은 훈련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훈련 효과가 높은 만큼 주민들은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장안 해수욕장에서 바라본 황죽도, 한국 공군의 해상 사격장〉

매항리 농섬과 같은 해상 폭격장인 웅천 황죽도는 섬 안은 작은 모래사장과 잘 다듬어진 바다 자갈과 키가 작은 잡목 등으로 이루어진 무인도이다. 공군 사격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낚시와 고기잡이가 좋았다고 한다. 황죽도 연안에서 20m 전방 부근부터 포탄과 탄피가 쌓여 있고 바닷물에 부식돼 심하게 녹슬어 **수중식물이 없고 녹슨 탄피** 때문에 백화현상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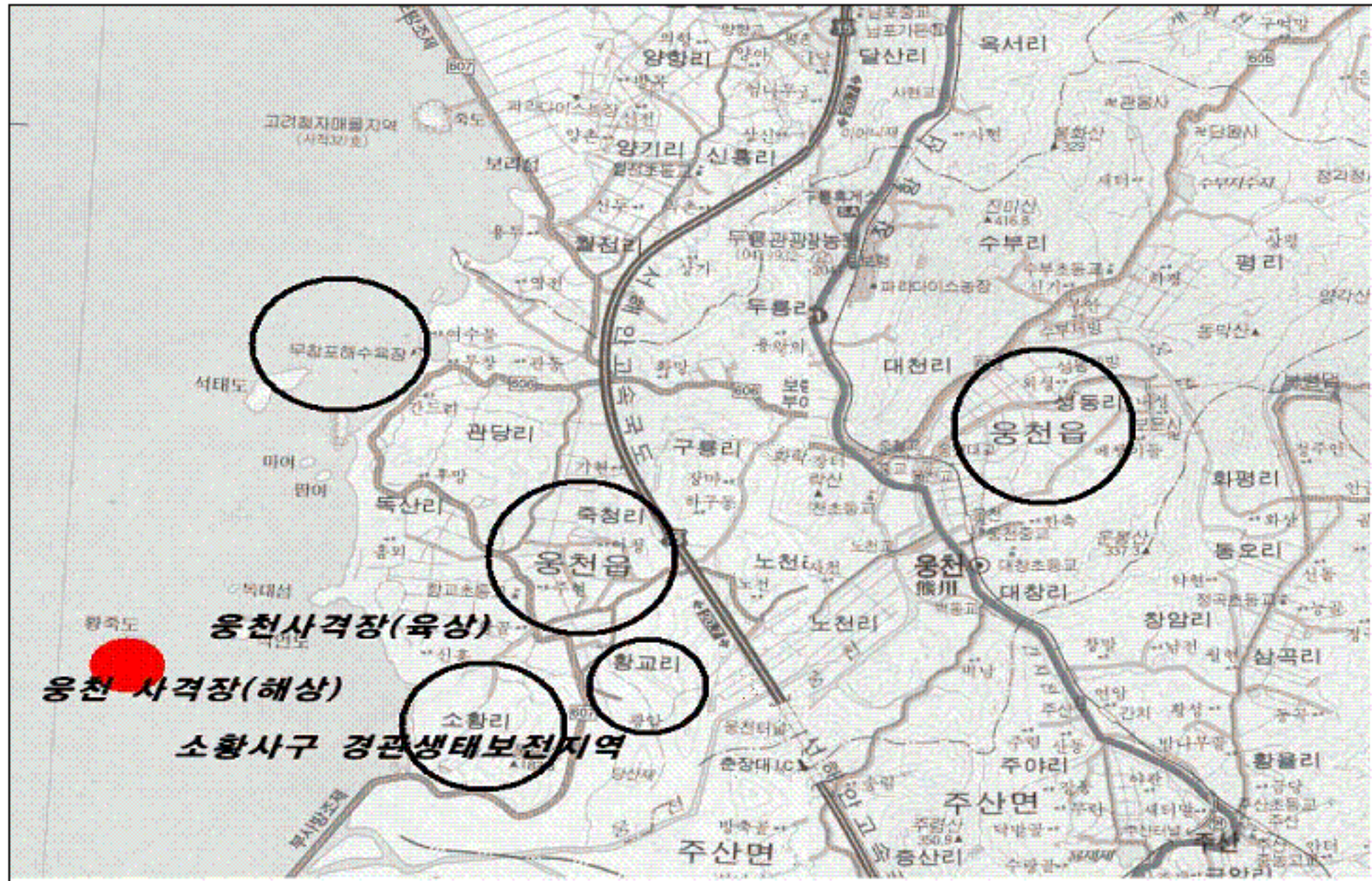




〈소항리 마을과 바로 맞닿은 육상 사격장의 모습〉

2006년 3월 14일, '웅천 공군 폭격장 이전촉구궐기대회' 개최  
 웅천역 앞 주산, 서천 서면 주민 1천 5백 명 참가해, 첫째, 매항리  
 대체 사격장 절대 반대 둘째, 150만평 확장예정 및 통제구역설정 통  
 지 철회 셋째, 소음, 환경피해의 심각성으로 훈련장 폐쇄 요구 및  
 최소한의 조치 등을 요구하는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2005년 8월,  
 경기도 화성 매항리 미 공군 사격장이 폐쇄되면서 대체 훈련장으로  
 웅천 사격장이 거론되던 중, 공군이 150만 평 확장 예정 및 통제구  
 역을 설정하겠다고 발표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매항리 사격장 폐쇄  
 이후 A10 미 전투기가 자주 비행하는 것이 목격되면서 주민들 불안  
 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었다. 2005년 10월 웅천발전협의회와 군과 간  
 담회를 통해 주민과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사항 5개 항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나, 군은 하루만에 주민과 대화 필요성이 없  
 다며 대화제의를 거절해 주민들을 분노케 했다.





2004년 당시 6월1일, 용천역 광장에 연습탄이 떨어졌다. 공군은 6월 10일, 오폭재발방지 대책 설명회 개최를 통해 조종사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공군은 이 사고 이후 재발방지대책으로 사격경로를 인구밀집지역으로 향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조종사 실수로 인한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사격준비단계에서 켜던 무장스위치를 최종사격단계에서 진입 직전에 무장 스위치를 켜도록 변경했다. 이 날 사고 이후 중단되었던 훈련이 6월 14일 재개되었다. 과거에는 추락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런 불안감은 소음 소송에서 비예측성으로 인정받아 배상 금액이 다른 소음 소송지역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피고가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훈련비행고도를 저공비행에서 고공비행으로 바꾸기 전에는 용천 사격장 주변 소음도가 75dB 이상으로,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생활방해를 받았다고 인정된다” (판결문)*

2003년 소음 측정 자료(‘용천공군사격장환경피해조사용역’,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순간 최고 소음 107~112dB 측정되었다. 소음 소송 1심에서 2004년 1월 2,302명 98년~2001년까지 기간에 대해 소음 75dB ~80dB 지역은 1인당 월 7만원, 80dB 이상은 1인당 월 10만원 등 최저 5만 6천원에서 최고 380만원까지 배상 판결(1심)이 났다.





소항사구 경관생태보전지역의 모습. 육상 사격장과 가깝고 바로 앞 바다에 황죽도 해상 사격장이 있다

최근 저공비행(180m)에서 고공비행(900m)까지 높이고 야간 사격훈련을 금지하는 등 저감 방안이 마련되어 왔으나 설문 조사 결과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는 과거와 비슷하다. 웅천읍 황교리의 경우, 2004년 웅천역에 연습탄이 떨어지는 사고 이후 비행 경로가 바뀌면서 소음도가 더욱 심해졌다.

2003년 '웅천공군사격장환경피해조사용역'(이재영 교수, 서울시립대) 결과 토양은 허용 기준치 이내의 중금속이 검출됐으나 사격장과 가까울수록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오염개연상이 충분하며 사격장 내의 토양 오염 조사가 필요하다.

#### 4) 안흥 종합 시험장

이름	안흥 종합 시험장
행정 구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항리
면적	30만평
역사	1975년
관리주체	국방과학연구소
훈련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도 무기, 로켓, 총포, 탄약 시험</li> <li>· 휴일 때고 항상</li> <li>· 보통 저녁 6시까지, 가끔 밤 9시까지</li> </ul>
마을과 이격거리	과거 큰골이라는 마을에 조성됨. 연포해수욕장 2km
주변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내에 안흥 시험장이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해상국립공원이다. 안흥 시험장과 바로 붙어 있는 연포 해수욕장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유일하게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li> </ul>
피해 영향권	근흥면 도항리, 정족리, 신진도리

안흥 종합 시험장은 다른 사격장과 성격이 조금 다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사용하는 곳으로 **다락터 사격장과 함께** 국방연의 종합시험장이다. 훈련보다는 유도무기, 로켓, 탄두 등을 시험 발사 해 보는 곳이다. 무기 수출을 위해 외국 회사 관계자나 국회의원들에게 무기 성능을 보여주는 경연장이기도 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은 헬기 잡는 장갑차라는 K21 개발 완료 보고회와 WRSA(전쟁예비탄약) 성능 시험이었다.

2007년 6월 29일 오후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열린 K21(헬기잡는 장갑차) 차기보병전투장갑차 개발완료 보고회에서 군 관계자

등이 장갑차를 살펴보고 있다.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 완료된 차기보병 전투장갑차는 40mm 자동포와 대전차 유도무기 탑재를 바탕으로 전차 수준의 야지 기동력, 수상 도하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

미국이 유사시에 대비해 남한에 비축해놓은 전쟁예비물자(WRSA<sup>1)</sup>) 인수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WRSA 탄약 성능 검증 작업이 20일 오후 3시 안흥시험장에서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이날 시험에서는 WRSA탄 중 가장 많은 155mm 탄 중 무작위로 고른 60발이 발사됐다. 시험요원 10여명이 포신에 68년과 74년 각각 생산된 30발씩을 차례로 장착해 서해안으로 발사, 사거리와 탄두 속도, 탄두 사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개당 50만원인 155mm 탄은 초당 560m의 속도로 최고도 760m의 포물선을 그리며 8.7km 떨어진 서해바다의 탄착 지점에서 물보라를 일으켰다. (출처 : 한국일보)

---

1) 미국은 1974년부터 99년까지 50만여톤의 WRSA를 한국에 도입했지만 정비와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보관을 2008년 말까지 종료키로 했다. 국방부는 탄약이 99.9%인 WRSA 중 155mm 탄 등 쓸 수 있는 물자가 많다고 보고 일부를 인수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내 시설 사진. 종합 시험장을 만들 때 기상 관측소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한다

안흥 시험장 주변은 어느 지역보다 어업 피해가 크다. 그래서 진행 중인 소음 소송 원고인단 대부분이 어민들이다. 낮 동안은 언제 시험사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민들은 사격을 피해 새벽 2시부터 아침 9시 경에 바다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들이 초등학생 두 명인데, 아침을 내가 챙겨줄 수가 없어. 어린 것들이 알아서 일어나서 학교가고 그러지”





안흥 종합시험장은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다. 국립공원 관리 차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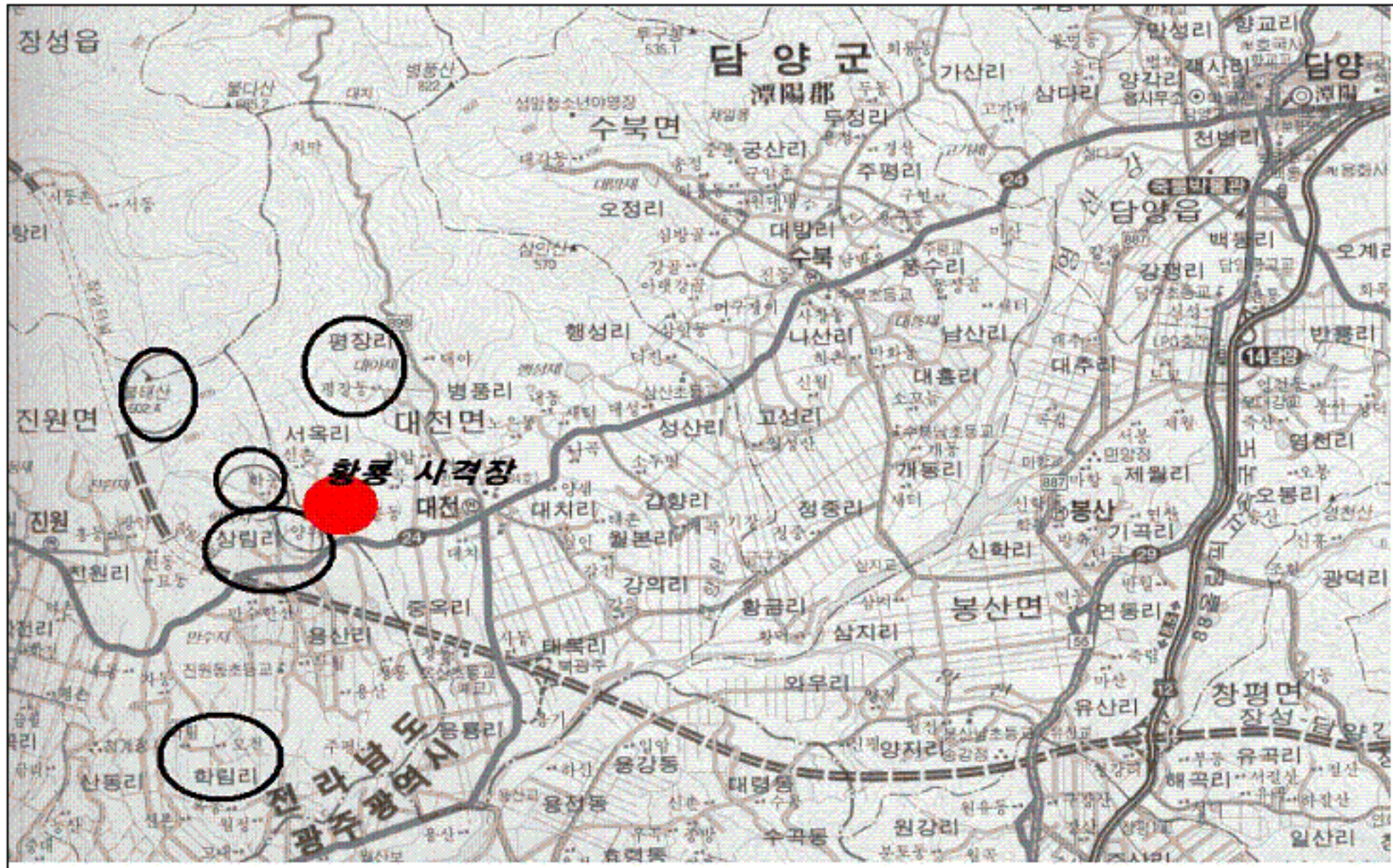
기형 물고기나 종기가 난 물고기가 많이 잡혀 사격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지만 과학적으로 규명된 적은 없다. 돌연변이가 잡히기도 하지만 해상으로 쏘는 포에 맞아서 꺾질이 벗겨진 물고기도 잡힌다고 한다.

어업을 하다가 갑자기 연구소측 큰 선박이 배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사격이 있으니 이 해역에서 나가라고 위협한다. 어민들은 자꾸 쫓아내는 선박에 대항해보기도 하지만 큰 배가 가까이 접근할 때 생명의 위험마저 느껴 어업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고기 잡던 배에 폭격을 가해 사람이 죽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 대부분은 사고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한다.

5) 황룡 사격장(담양 전차포 사격장)

이름	황룡 사격장
행정 구역	전라남도 담양 대전면 서옥리 불태산 일대
면적	90만평
역사	1954년
관리주체	육군 상무대 기계화학교
훈련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5mm전차포의 실무장탄 주로 사용.</li> <li>· 피탄지에는 5개소의 탄착지점</li> <li>· 훈련: 월요일부터 금요일, 2005년부터 오전 9시 ~11시에 사격</li> <li>· 2004년 현재 기준 각 탄별 사격비율은 105mm탄 약 70%, 90mm탄 약 25%, 120mm탄 약 5%의 각 비율로 사격</li> <li>· 2003년에 120mm 탄 처음으로 사용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훈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은 소리가 가장 크다고 한다</li> </ul>
마을과 이격거리	· 학동, 양유 마을 700m ~1km
주변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태산 자락에 위치</li> <li>· 사격장 바로 옆으로 용산천(지방2급 하천)이 흐름</li> </ul>
영향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학동마을, 양유마을)</li> <li>· 담양군 대전면 서옥 마을, 화암 마을, 평장마을</li> <li>· 반경 2km 안 2개 군 3천명 거주</li> </ul>







2001년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차포 사격장의 소음과 가옥의 균열, 폭발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있어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격장을 이전해야 한다. 군당국이 방벽을 설치하고 탄착점에 동굴진지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효과가 의문시되고 낙탄(落彈)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며 담양 전차포 **사격장 이전권고**를 육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대체 부지 마련이 어려워 이전 계획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전차포사격장으로 인해 그간 민간인이 16명 사망했고 40여 명이 부상했다. 또 이곳 주민들은 전차 포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유탄과 낙탄 등으로 인해 생명 위협, 임산부의 사산, 건축물의 균열과 건물파손, 정신적 스트레스 등 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다. **사격장을 중심으로 2km 안에 거주중인 주민 3000여 명과 한재초등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짧게 만든 방어선이 불태산 자락에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사격장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2000년 8월에는 대전면 평장리의 한 민가에 포탄이 날아들어 부엌 유리창과 축사 지붕을 파손한 일이 있었다. 평장리는 3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이지만, 올 들어서만 5~6차례 민가에 포탄파편이 떨어졌다. 농경지에 떨어진 파편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을 정도다. 주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살았기에 덜하지만 외지에서 마을을 방문한 이들은 불안과 공포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외지에서 이들 지역에 시집을 온 신부들의 경우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하지 못하고 떠나거나 사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친지가 있어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다가 바로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피탄지가 있는 산지의 능선 뒤쪽에 있는 장성군 북하면 월성리 일대도 포탄이 수시로 날아들어 마을과 농경지를 위협하고 있다.



2005년 사격장 산탄이 떨어져 피해를 입은 주택. 군 부대에서 시설 보수만 해 주었다

소음에 노출된 지역인 학동마을과, 양유, 상림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인정하였다. 보통 1발 사격시 소음이 3분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 육군은 담양 전차포사격장에서 신형 K1A1전차의 120mm 전차포를 사용했는데 신형인 K1A1전차의 120mm포는 그 위력에서 지금까지 주로 사용해 오던 105mm전차포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이로 인해 **진동과 소음이 훨씬 심각해 졌다.**

마을이 사격장과 1km도 떨어지지 않아 진동도 큰 위험 요소이다. 기와가 내려앉아 비가 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주민 대부분이 스스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었다.

2005년 4월, 탄착지에서 약 700m 떨어진 진원면 양유마을 한 집에 90mm 전차 포탄의 산탄으로 추정되는 **지름 10cm 크기 파편이 떨어져 천장이 뚫리는 사고** 발생했다. 다행히 방안에 아무도 없어서 인명 피해는 피할 수 있었다. 군부대는 이번에 문제가 된 포탄은 사용을 금지했고 유탄방지시설로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8년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가 69dB 이상이고 순간 최고소음도가 100dB 이상인





포 사격으로 인한 진동 때문에 양유 마을 대부분 담 벽락과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예전에는 밤 10시까지도 사격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오전에만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을 줄이더라도 과거 피해가 주민들에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주민들이 귀에서 때머우는 소리가 난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군부대에서 98년, 1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방음벽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한다. 다른 것보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한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뿐 아니라 불안감이 늘 있다.

**98년 사격 소리에 놀라 유산한 사람도 있었으나 유산 사실을 쉬쉬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1994년**에 사격장이 한 차례 확장되면서 당초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던 신촌 환인마을이 사격장 부지로 편입 되어 **1995년** 주택 37동을 건립 집단 이주 마을이 형성되었다.

**2007년 1월**, 사격장 경계 부근에 수 백여개의 **포탄 폐기물**이 방치된 현장이 발견되었다. 폐기물은 군부대에서 위탁처리를 시작한 **2001년** 이전 불법투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정희권(전차포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희권씨는 95년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장성군 예산으로 소음 측정을 하면서 대책위 활동을 시작했다. 정희권 대책위원장이 당시 장성군 의원(91~95년)으로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군 예산을 끌어올 수 있었으며 소음 측정 자료는 이후 소음 소송에도 활용되었다.

“ 소음 소송은 꼭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군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해 나갈 것이다. ”

전차포 사격장은 담양군과 장성군 경계에 있는데 담양 전차포 사격장이라고 불리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장성군 주민들이 입는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2001년 민관군 참여하는 이전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전 권고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후보지 몇 곳에 대한 실사 작업 이후 장성군 북하면이 유력 후보지로 알려지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장성군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12년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최근 2015년까지 다시 지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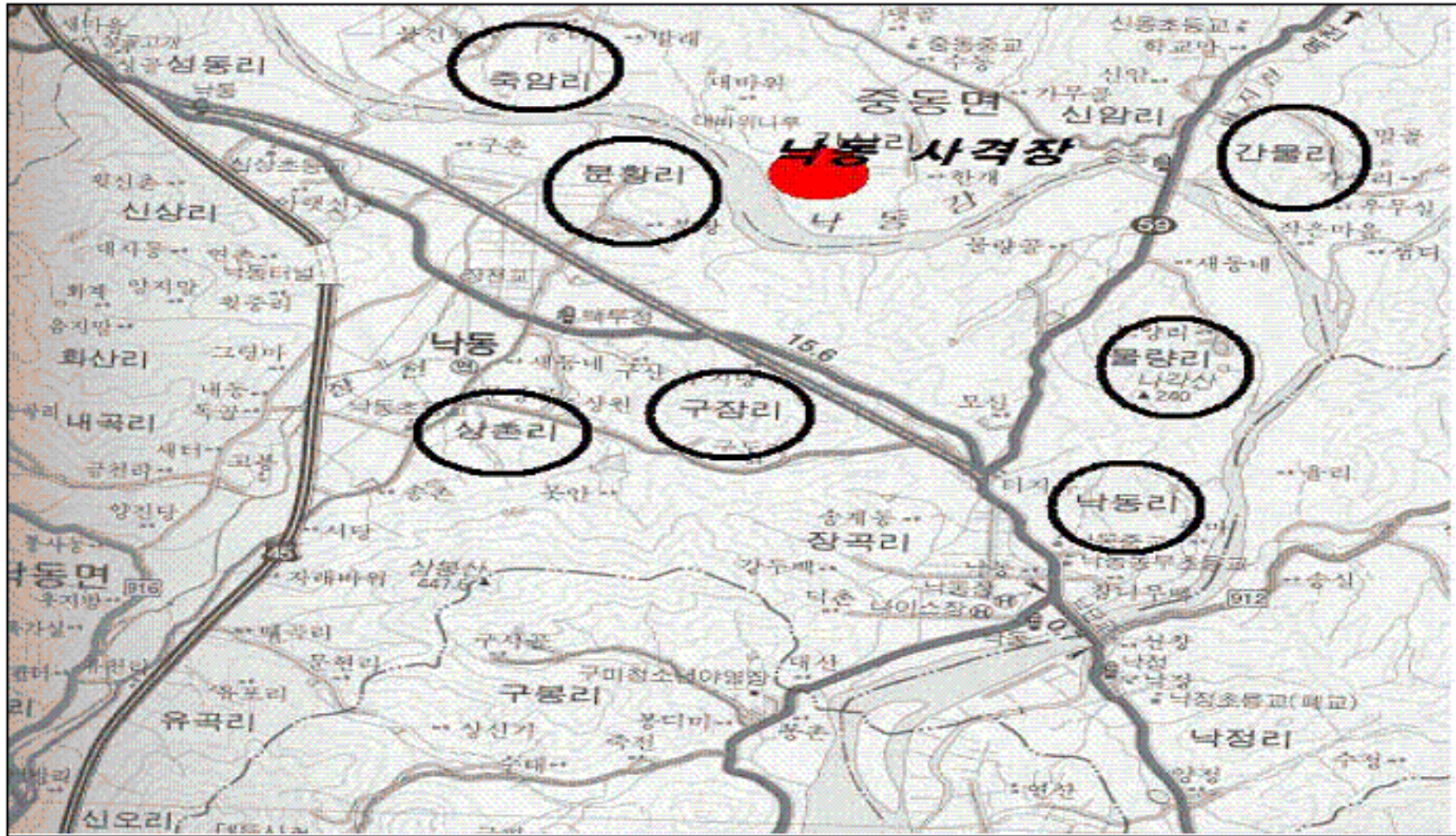
5년 전 군부대에서 양유, 학동 마을 등의 주택 건물 균열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으나 이후 추가 조치는 없었다. 또 작년에 소음 측정을 하기도 했으나 결과는 통보해 준 적이 없다고 한다. 과거 90mm 훈련할 때는 지금처럼 소음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105mm가 훨씬 더 크다.

## 6) 낙동 사격장

이름	낙동 사격장
행정 구역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죽암리
면적	149만평
역사	1953년
관리주체	공군 3196부대
훈련종류	· 최근 일주일에 2~3회 훈련 실시. · 약 5년 전까지 기총사격 훈련했었음.
마을과 이격거리	주변 마을 분황리, 물량리 등 약 2Km
주변 생태계	· 낙동강 수변 구역에 사격장이 조성되어 있다
피해 영향권	경상북도 상주시 증동면 죽암리, 신암리, 우물리, 간상리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상촌리, 구잠리, 분황리

낙동강 주변에 있는 낙동 사격장은 **내륙 지방의 중요한 훈련장**이다. 피탄지는 낙동강 옆 모래펄에 약 2~3천 평으로 펼쳐져 있다. 2002년 추락 사고 이후 과거 보다 사격장 면적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바로 옆 농지가 조성되어 있는 **안전 사고**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훈련탄만 사용 중이나 과거 실탄을 사용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곳곳에 잔탄이 널려 있어 토양오염의 가능성 있다.

2002년 9월 18일, F-16D 전투기 1대가 18일 사별면 상덕가리 180번지 공군 낙동사격장 부근 **야산 중턱에 추락**했다. 공군에 따르면 19전투비행 단소속의 전투기가 이날 공대지 사격 훈련 중 엔진이 정지하는 고장이 발생하자 조종사가 재시동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전투기는 사고 뒤 화염에 휩싸였으나 민가에서 500m 떨어진 야산에 떨어져 대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력 이상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한 번도 실태 조사가 없었다.



낙동 사격장 피탄지는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농사 지역과 인접해 있고 낙동강 변에 있어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 있다

2006년 낙동면 주민 4,485여명 소음 소송 1심 승소해, 85웨클 이상인 경우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당초의 10% 정도에 불과한 433명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하고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28만 원의 배상가 판결이 내려져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주민 개개인이 느끼는 소음은 모두 심각한데 소음도에 따라 다르게 배상 판결이 나기 때문에 또 차별 받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소음 소송 차등 지급**에 따른 마을간, 주민간 갈등은 소음 소송이 이루어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지역은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1심 판결 이후 '저 옆 마을은 돈을 받았다더라, 왜 우리는 안 주는가'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1심 판결이후 양쪽에서 항소해 고등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지급**



되지 않는다.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은 환경부 소음피해 기준인 **80웨클보다 높은 85웨클을 적용**하고 있다. 군용 전투기에 대한 소음 소송이 시작된 90년대 말에는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점점 소송건수나 보상액이 많아지면서 기준을 올렸다. 현재 군용 전투기 소음에 대한 보상, 지원 제도가 전혀 없는데 **민간 항공기에 대한 소음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낙동 사격장처럼 예전에 비해 사격 훈련이 많이 줄어든 경우 소음 소송에서 현재의 피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현재 피해가 없다가 보다 과거 훈련 횟수가 엄청났었다) 오랫동안 피해에 노출된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피탄지 내 포탄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서 사격 후 정기적인 탄 수거가 제대로 되는지 의심되고 있다

2005년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조사한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학교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학생들은 지속적인 **주의집중력과 어휘력 및 추리력에 영향**을 받아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전체적은 지능지수(IQ)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는 상주 낙동 사격장 주변 학교 학생이 조사에 포함되었고, 소음에 폭로된 학교는 다음과 같다.

번호	학교명	소재지
1	경북 화달초	상주시 사벌면
2	경북 두릉초	상주시 사벌면
3	경북 증동초	상주시 증동면
4	증동초신동분교	상주시 증동면
5	경북 사벌초	상주시 사벌면
6	상주 동부초	상주시 헌신동
7	상주 사벌초	상주시 사벌면
8	상주 증동중	상주시 증동면
9	상주 사벌고	상주시 사벌면

국방부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농촌 진흥청 등에 위탁해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 우물 1리 등이 여기에 해당되지만 아주 낮은 보상가 때문에 주민들은 불만이 크다. 땅은 없고 주택만 있는 주민들은 한 채 1,500만원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서 전세 값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고 일단 이주시키는 것은 고향에 살고 싶은 주민들의 뜻에 반대된다. 만약 이주하게 될 경우 공동체를 지킬 수 있게 하거나 타당한 보상가를 지급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박원곤 이장 (낙동면 물량 2리 이장)

마을 주민들 중 청력 이상인 분들이 많지만 한 번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다. 과거보다 사격 정확성이 높아져서 잔탄 문제는 줄었지만 계속되는 소음 문제가 관건이라고 한다.

훈련시간 통보해준 적 없다. 중동·신암·우물·물량리 등 사격장 반경 1Km 내 마을이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우물리와 물량리는 전투기가 사격을 하고 다시 상승하는 선로에 위치해 피해가 심각하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군이 사용하던 사격장을 한국군이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마을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

소음 방지를 위해 이중창 설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필요하지만 농민들은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시간에는 그냥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은 뻘다” 며 주민들이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숨 쉰다.

주변 학교에 2중창을 설치하더라도 농민들은 논과 들에서 일하기 때문에 소음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직접 피해지역은 매입 -> 보상 -> 이주를 실시하는데 소음피해지역은 아무런 보상도 없다고 한다.

## 7) 비승 사격장

이름	비승 사격장
행정 구역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양덕원 부근)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홍천군 남면에 걸쳐 있음)
면적	325,970평
역사	1998년 조성
관리주체	11사단 기갑부대 (육군 8971부대)
훈련종류	·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 헬기, 전차, 장갑차에서부터 토우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개인화기 사격 등 · 중부권의 유일한 헬기 사격 훈련장이다.
마을과 이격거리	· 도원리와 1km 거리
주변 생태계	· 남한강에 유입되는 흑천이 사격장에서 마을 쪽으로 흐른다 · 백두대간의 한강정맥 일부
피해 영향권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신론리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2004년 7월 9일,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마을 인근에서 실전에 사용되는 대전차용 90mm 철갑탄이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해했다. 군부대측은 이날 발견된 오발탄은 폭약이 들어있지 않은 대전차용 90mm 철갑탄으로 마을 인근에 있는 비승사격장에서 실시된 전차부대 훈련도중 마을 인근까지 날아온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마을 주변에서는 헬기부대에서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로켓 연습탄도 발견되어 마을은 슬렁였다.

특히 당시 주민들이 사격장 확장 방침에 대해 반발하던 가운데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와 분노가 더 강력했다. 주민들은 군부대가 현재 조성된 사격장 아래쪽인 덕갈고개 밑까지 사격장을 확장하려

한다면서 반발했었다. 그러나 군 부대는 사정 거리가 길어져 발사하는 곳과 피탄지와의 이격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만여평 매입할 계획**이지 확장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갈등은 2006년 7월, 군 부대가 양평과 홍천주민 20여명이 **농기계 등으로 사격장을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던 과정에서 사병 등 3명이 주민들로부터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양평군 신촌리 주민 김모(72)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2003년 주민과 군부대간 협약이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훈련을 재개했다면서 불만을 터트렸고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주민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현재 확장 계획은 중단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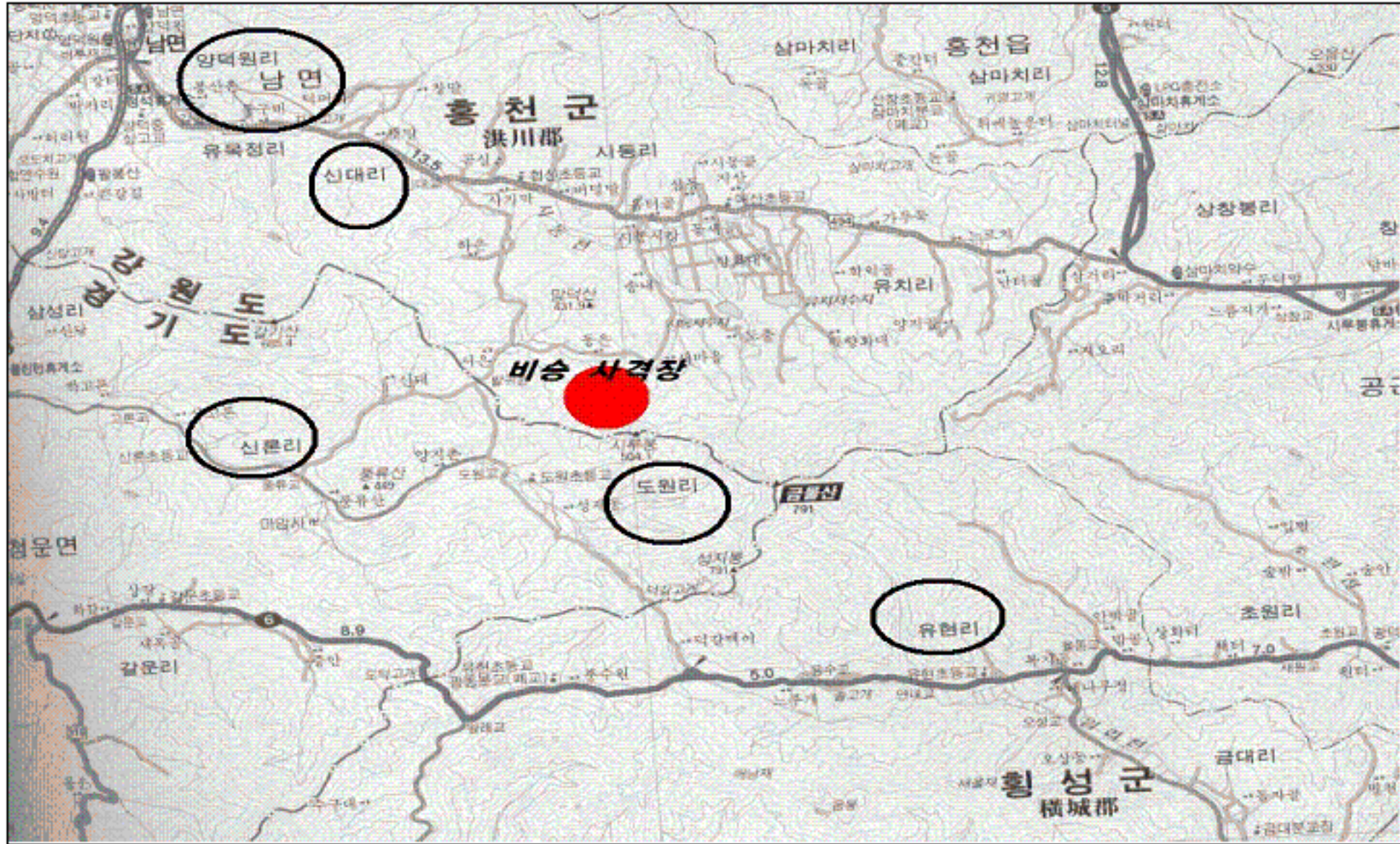


국방부 '사격장 토양오염조사 및 오염확산 방지대책 연구'(2002)에 따르면 표본 조사한 9개 사격장 중 경기도 양덕원의 비승사격장에서는 우려 기준의 30배인 45mg/kg의 카드뮴이 나왔다. 특히 비승사격장의 경우 카드뮴의 **장기적인 오염 확산 가능성이 다른 사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흑천 상류이기 때문에 상수원 안에서 사

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격이다. 포탄 등으로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다.

“농민들은 비료도 못 쓰게 하면서 군 부대에서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대도 조사도 없이 계속 훈련해도 되나” (도원리, 남, 60대)







2년 전 개울에 기름이 발견되어 조사를 해 보니 위병소에서부터 기름이 유출되었다. 과거 군 부대에서 폐유를 묻었던 것이 유출된 것으로 미생물 정화법을 이용해 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끔씩 포 사격을 하는데 포 사격으로 인한 소음보다 계속 날아 다니는 헬기 소음이 주민들을 더 괴롭힌다. 최근에는 고도를 높이기 때문에 과거 보다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참기 힘들다. **탱크**가 지나갈 때는 잠을 못 잘 정도인데 주로 **밤 10시가 넘어 이동**하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한다. 또 탱크 이동 등으로 도로가 훼손되고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고, 사격장 내에서 기동 훈련을 하기 때문에 흑천에 흙탕물이 내려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탱크, 군 트럭의 이동으로 도로 많은 지역의 도로는 늘 이런 모습

가 더럽혀진 모습. 군 사격장이 많은

최근 2007년 2월 28일 사격 중 큰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마을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92년에는 큰 산불이 나 마을 뒷산까지 산불이 번진 적도 있다고 한다.

도원리 주민들은 2년 전쯤부터 국방부 민원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최근에는 그 때 그 때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부대에서 나와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라고 했다. 물론 한꺼번에 바뀌지 않지만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도원리에서 강원도 홍천군 서면과 횡성군 서원면으로 연결되는 군도 8호선(10.2km)이 폐쇄 조치됐다. 비승 사격장 이용을 위해 군도 8호선의 도로 5.3km를 군부대 영내로 편입시키고 주민들의 도로 이용을 통제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

산나물 채취 등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이장에게 미리 훈련 일정을 통보한다.

## 8) 영평 사격장

이름	영평 사격장
행정 구역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등
면적	340만평
역사	1950년 사용시장(1070년에 미국에 공여)
관리주체	주한미군
훈련종류	· 1년에 한국군은 100일 정도, 미군은 340일 정도 훈련 · 오키나와 주둔 미군이 와서 훈련을 하기도 함
마을과 이격거리	영평리와 200m
주변 생태계	블무산 자락에 사격장이 위치해 있다
피해 영향권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운산리, 영평리 /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산정리, 문암리, 대화산리, 소회산리, 자일리, 야미리,
주변 다른 사격장	원평 사격장, 승진 사격장, 다락터 사격장

영평 사격장은 미 공군 폭격장이었던 화성 매향리의 7.7배, 군산 적도사격장의 114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미군 사격장**이다. 언론에는 2003년 대학생들이 미군 훈련을 반대하기 위해 진입했던 사격장으로 더욱 유명하다.

주민들은 그동안 **소음, 진동, 도비탄**(지면에 포탄이 닿으면 2~3m 상승후 터지는 포탄) 등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탱크 이동과 무기 수송으로 인한 도로 파손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해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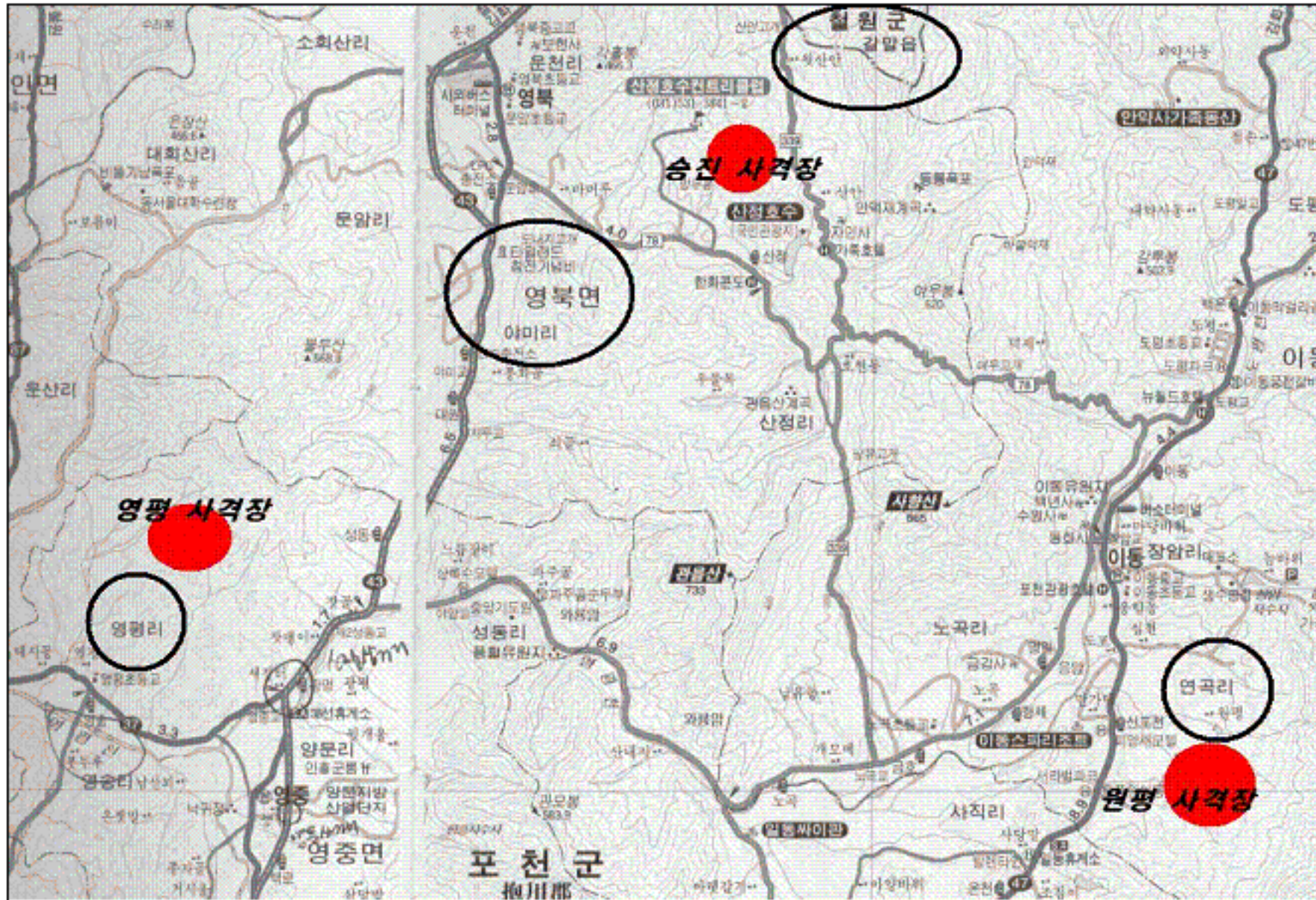
이곳은 다른 곳보다 야간 훈련의 피해를 더욱 크게 호소하였다. 최근 전국적으로 주민 민원이 많아지면서 야간 훈련은 가급적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영평 사격장 주변 주민들은 최근에도 **새벽 1시까지**

헬기가 날아다녔다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한다. 주변에 “한국군 훈련장도 많지만 미군 훈련장이 제일 나쁘다”는 주민들의 분노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예전에는 현재 포천시청이 있는 포천읍보다 영평읍이 더 컸었는데 사격장이 들어오고 나서 마을이 발전이 안 되었다는 불만이 높다. 소음 때문에 짜증나고 불안하다는 말은 주민 대부분이 하고 있다. 특히 군 부대에 대해서는 “말로만 한다”면서 주민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오가리는 포탄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 실제로 포탄이 마을 위로 날아다니는 정도라고 한다. 이 경우 소음보다도 주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감이 더 큰 문제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개정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1만7천여 평의 터에 주둔하던 캠프 홀링워터를 영평사격장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 부대는 미2사단에 딸린 공병부대인데, 2003년 말 기름유출 의혹 등으로 말썽을 빚기도 했다. 캠프 홀링워터는 2005년 9월 의정부 기지가 폐쇄돼 현재는 동두천시 있는 다른 기지에서 임시 주둔하고 있는데, 2008년 6월까지 이 부대 이전을 끝낼 계획이다. 현재 영평 사격장 내에 미군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재편이 일어나면서 미군 기지가 확장되는 지역과 반환되는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반환 공여 지구역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사격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지역처럼 미군 시설이 있는 주변 지역을 개발할 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포천시는 모르고 있던 홀링워터 부대의 영평 사격장 이전에 대해 중앙 정부에 항의하는 등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천에는 영평 사격장 외에도 승진 사격장, 원평 사격장 등 주요 한국군 훈련장이 있다. 최근 원평 사격장은 주민들이 트랙터 등으로 훈련 진입을 막아내기도 했다.



3번 국도에 걸쳐 있는 사격장 반대 현수막. 소음, 진동, 분진 피해가 계속되자 주민들은 사격장 반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포천시 사격장 민원 현황<sup>2)</sup>

□ 포천시 군부대 사격장 및 주변지역 마을 현황

이름	면적	용도	관할부대	마을명	가구수	인구수	이격거리
영평미8군종합사격장	127만평	헬기등 27종사격	미8군	영중면 영평리	215	597	200m
				영중면 영송리	167	410	
				창수면 오기리	264	748	500m
				운산리	108	277	100m
				영북면 야미리	200	490	500m
				대외산리	185	9	200m
승진사격장	6,012천평	명크,헬기 전투기 사격	8사단	영북면 산정리			
				이동면 장암리	194	579	500m
원평사격장	73천평	명크사격 공용화기	수도사단	이동면 연곡리	51	133	300m
광산골포사격장	4.4천평	자주포 명크사격	8사단	이동면 장암6리	194	579	600m

□ 영평사격장 관련 주민피해 현황('98~'06. 8월 현재)

지역	계	폭격 훈련	돌발및 도비탄 낙하	헬기 저공	교통 사고	산불 발생	기름 유출	토사 유출	영내 출입	기타
계	35	1	8	9	2	8	2	2	2	2
창수면	6	1	1	1						
영중면	22		1	5	2	8	2	2	2	
영북면	7		5							2
관인면	1		1							

2) 군 사격장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2005, 포천시의회



## □ 군사시설 관련 주민 피해 사례

### ○ 폭파훈련장 소음, 진동 피해

- 1998. 1. 17. 창수면 운산리 농가 부근 폭파훈련장에서 폭파 훈련장으로 들덩이가 주택, 차량 지붕에 낙하 피해 발생

### ○ 폭탄낙하 및 도피탄 피해(8건)

- 1998. 2. 5 영북면 야미리 영평 사격장에서 포탄이 낙하하여 주택 및 축사 일부 파손
- 2000. 10. 11 영북면 문암리. 영평 사격장 헬기 로켓이 공장 마당에 낙하
- 2000. 10. 13 영북면 야미리. 영평 사격장에 도피탄 탄피가 낙하. 시당 지붕 및 테이블 파손
- 2001. 4.1 영중면 성동리 농지에 영평사격장 155mm 폭탄이 농지에 낙하(미폭발)
- 2004. 1. 17 창수면 오가리 미군 사격 훈련장 날개 안정 예광탄의 부속물이 농가 돈사에 낙하. 지붕 및 내부시설물 파손
- 2005. 5월초 영북면 야미 2리 축사지붕 낙하, 지붕이 뚫어짐.
- 2006. 1. 31 영북면 야미2리 민가 도비탄 낙하로 인명피해(어깨스침)
- 2006.10.4 관인면 냉정 1리 논에 승진사격장 사격훈련 중 F15전투기에서 연습탄(직경 40cm , 길이 2.54m)이 떨어져 농가 지붕슬레이트 및 태양열 전열판 및 비닐하우스가 뚫어짐(농가 피해액 1200만원)

### ○ 헬기 저공 비행으로 인한 폭풍 피해(9건)

- 1998. 6.17 창수면 오가리 일대 헬기 저공비행 폭풍으로 농작물 훼손
- 1998.10.25 영중면 거사리 인삼밭 피해 파손
- 1999. 6. 19 영중면 영평리 건물 및 농작물 훼손
- 2001. 2. 19 영중면 영평리 축사파손 및 젖소 유산 및 폐사
- 2003. 5. 11 창수면 오가리 건설주유소. 주유소 캐노피 천정 파손
- 2003. 10.16 영중면 영평리. 건조중인 농산물 훼손



- 2004. 1.12 창수면 오가리 인삼밭 훼손
- 2005. 7. 18 창수면 오가2리 비닐하우스 및 주택지붕 훼손
- 2005. 7. 27 영중면 영평리 콩, 고추, 참깨밭 훼손

**○ 사격 및 훈련으로 인한 산불 피해(8건)**

영평사격장내 산불발생(피해면적 13.3 ha, 인력 681명, 헬기 25대)

※ 사격장내 산불발생시 사격을 중단하고 미 자체헬기 투입 등 초동진화를 하여야 하나, 한측 민간헬기(임차 산림청헬기)가 조기투입되어 산불 진화를 하고 있으며 진화완료 시점에서야 미군헬기가 투입되다 보니 많은 산림피해와 인근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음(문제점)

**○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등(2건)**

- 1998. 4. 1 영중면 영평리 316번지 도로변 농지에 유류 수송 차량 전복으로 기름유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 2004. 3.1 영중면 영평리 434번지, 훈련 차량이 도로 이탈로 농작물 피해 발생

**○ 산림 훼손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및 빗물 유입으로 농경지 등 피해(2건)**

- 2001. 8. 1 영평사격장 경계 철조망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으로 토사 유입 농경지 매몰 사고 발생
- 2005. 7 영평사격장 경계 철조망 주위 평탄작업으로 강우때 빗물도로 유입 발생(군도8호선)

**○ 이동차량, 전차 등으로 인한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2건)**

- 1998. 7. 2 영중면 영평리 434번지, 훈련 차량이 도로이탈로 농작물 피해 발생
- 2006. 7. 30 영중면 영평리 영평초등학교 앞 훈련중 장갑차가 도로이탈로 가드레일 60m가 파손되어 시설물 피해가 발생

## □ 최근 사격장(탄약고) 관련 민원 발생 현황

- 영평사격장 야간사격 중지 요구
  - 영중면 영평리, 창수면 오가리주민(2004.9월 전화)
- 영평사격장 인근 폭격 훈련장 주변 철조망설치 중지요구
  - 창수면 오가리, 운산리 18번지 주민이 산사태 우려(2004년 10월)
- 승진사격장 산정호수 탁류 방지 요구
  - 탁류방지대책 건의(2002년)
- 원평사격장 소음비상면지 대책 요구
  - 방음벽 설치 요구 (2004년 3월)
  - 방음림 조리 요구 (2004년 8월)
- 다락대 사격장 출입영농 요구 (2005년 5월)
  - 관인면 중2리 주민 14명이 다락대 사격장 인근에 출입 영농 탄원(6군단)
- 소홀읍 송우1리 탄약부대 이전 요구
  - 인근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민원 제기(2003년 11월)
- 승진훈련장 이주민 반대집회 (2005. 10. 1/ 150여명)

## □ 군사시설 관련 주민 탄원, 진원 민원(7건)

- 영평사격장 야간사격 중지 요구
  - 2001. 3. 6 영평리 사격장 피해 대책. 주민 403명이 야간사격 중단, 개인토지 영농, 묘소 성묘시 출입 편의 제공, 주민 피해 발생시 대책반 구성, 토사 유출방지, 생계곤란자 일자리 마련, 사격 일정 사전 통보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국방부, 미 2사단)
  - 2001. 5 영평사격장내 영농인들이 영농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미2사단)
  - 2002. 2 창수면 운산리 주민 일동이 운산리 소재 폭파훈련장 이전

요구 탄원서 제출(미2사단, 국방부, 포천군)

- 2003. 1. 22 창수면 오가리 일대 주민 백중현 등 556명이 영평사격장 인근 포사격장, 폭파 사격장 이전, 야간 사격 자제, 헬기 저공 비행 자제 요구 탄원서 제출
- 2003. 12. 5 탄약대대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소홀음 송우리 소재 탄약 부대로 인한 건축행위 제한을 받자 이전요구 탄원서 제출(포천시)
- 2004. 3 이동면 연곡2리 노인회장이 영평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피해 호소, 방음벽 설치 요구(포천시)
- 2005. 9 . 6 이동면 장암3리 승진사격장 이주를 반대하는 이주대책 탄원서 제출(국방부, 육군본부)

### 이병욱 (포천시의원, 54세)

이병욱 의원은 경기도 포천시 의회에서 군 사격장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의원 역시 영평 사격장 등의 피해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민 피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난 2004년 10월 21일부터 2005년 6월 31일까지 의회에서 특위 구성해 군 부대 현장을 방문하고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활동을 이끌어냈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 고물을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당시에는 생계 유지를 위한 고물 장사가 치열했고 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사격장에 들어가는 일도 많았다. 그러다 불발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9명씩 죽는 일도 있었고 과거 사고로 현재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도 있다.”



헬기가 저공 비행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계속되고 전차가 이동하면서 도로 파손되고 간판, 가옥 피해가 생긴다. 이런 경우 모두 시의 예산으로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발생도 많다고 한다.

“미군에게 12시 이후에 하지 말라고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 한국군의 경우 시정하는 시늉이라도 하지만 미군에게는 말을 해도 효과가 없다.”

공여지 지원 특별법에서 사격장 주변은 제외되어 있어 주민들의 소외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주민지원과 업무로 있다가 현재 포천시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사라지고 재난 관리과의 업무 중 하나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경기2청에서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군관 협력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원례회의를 하고 있다.

## 제3장

# 주민 설문 조사 결과

# 1. 주민설문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07년 9월 ~ 11월

○ 조사 대상 : 126명

○ 조사 마을 : 10개 마을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동호마을	미여도 공군 사격장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물량1,2리	상주 낙동 사격장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양유마을	담양 전차포 사격장
충청남도 웅천읍 소황리, 황교리	웅천 공군 사격장
경기도 포천시 영송리	영평 사격장
경기도 연천군 중리, 신답리	다락터 사격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안흥 종합 시험장

○ 조사 방식 : 대면 설문

10개 마을 주민 126명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자 중 남성은 75명, 여성은 51명이다. 조사 마을 선정은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마을 여건이 가능한 곳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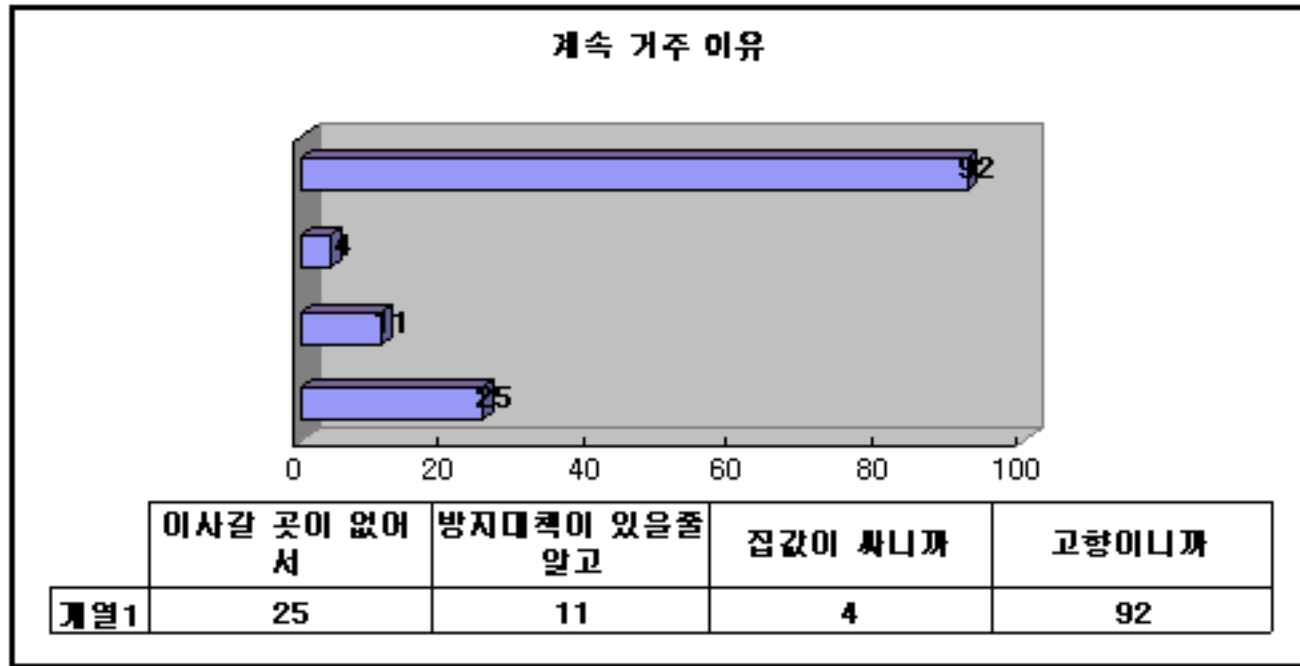
설문 문항은 사격 훈련으로 인한 물적, 신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조사 문항과 주민들이 피해 정도와 이에 대한 정부, 군 부대의 대책에 관한 인식 조사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설문 조사는 주민들이 사격장 피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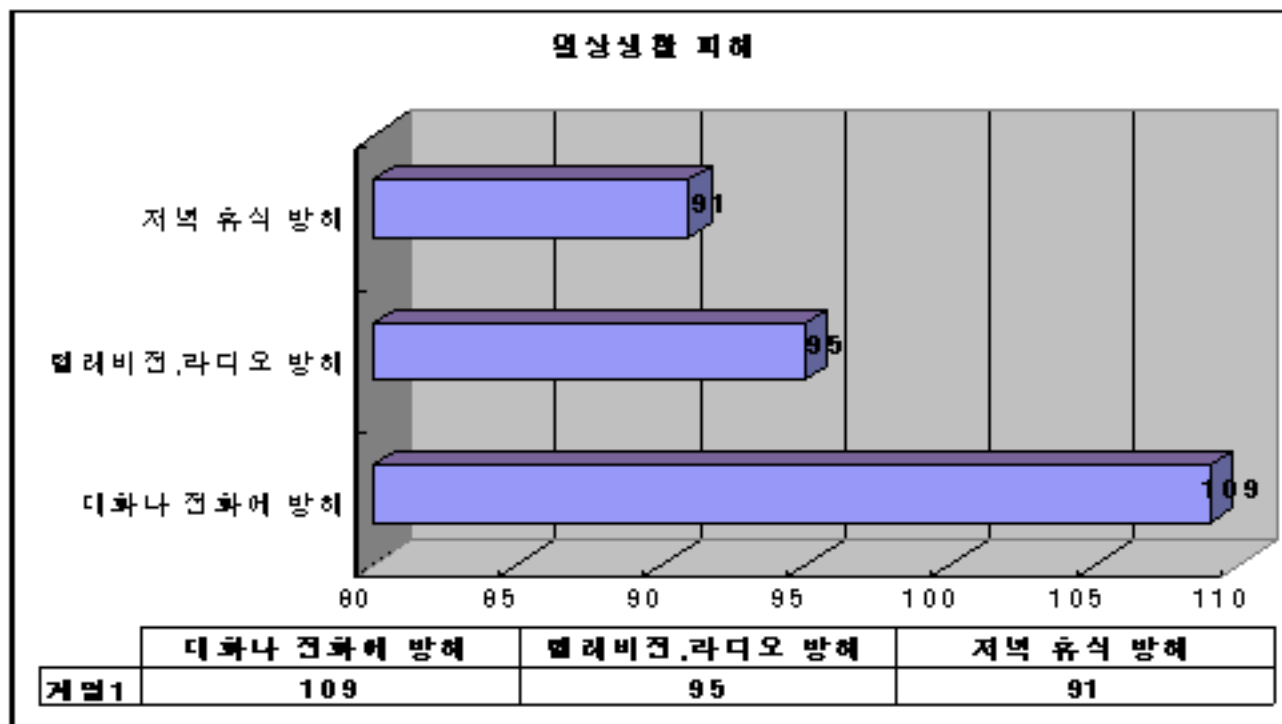


## 2 주민설문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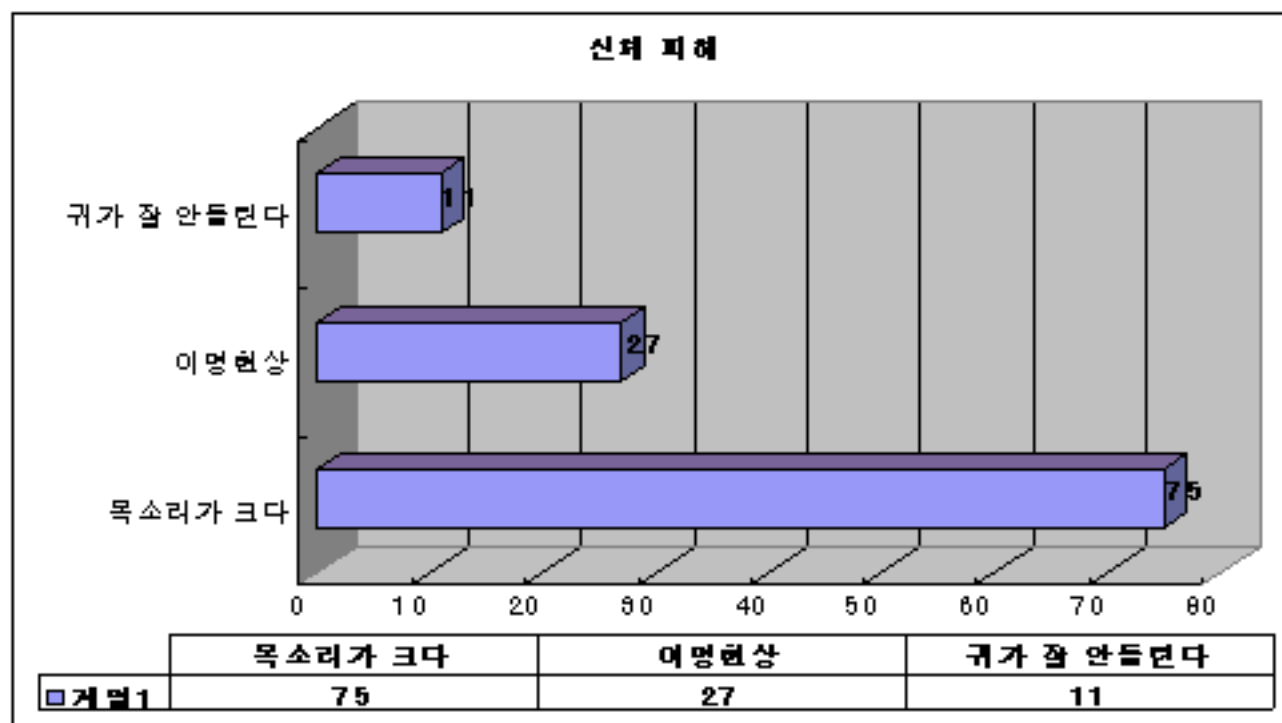
1. 사격장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92명이 생활근거지(고향이므로)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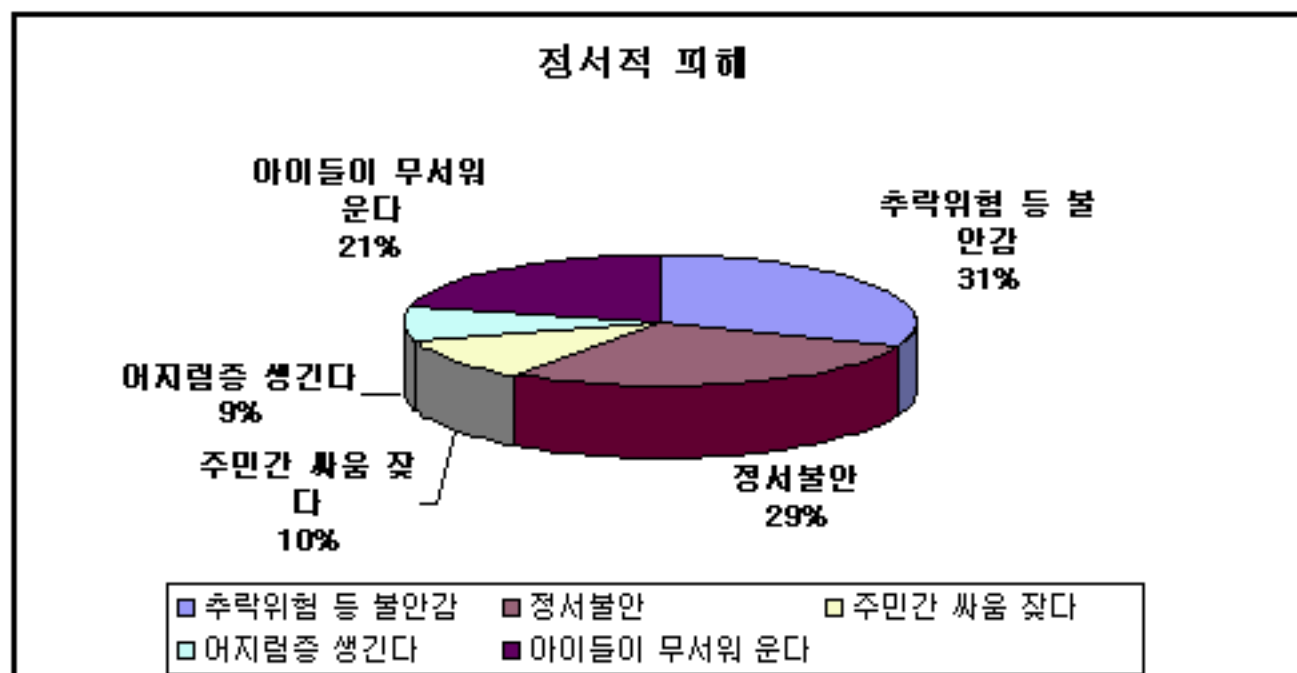
2. 소음 때문에 대화나 전화 통화에 방해가 된다고 답변한 사람 109명,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듣기 어렵다고 한 사람이 95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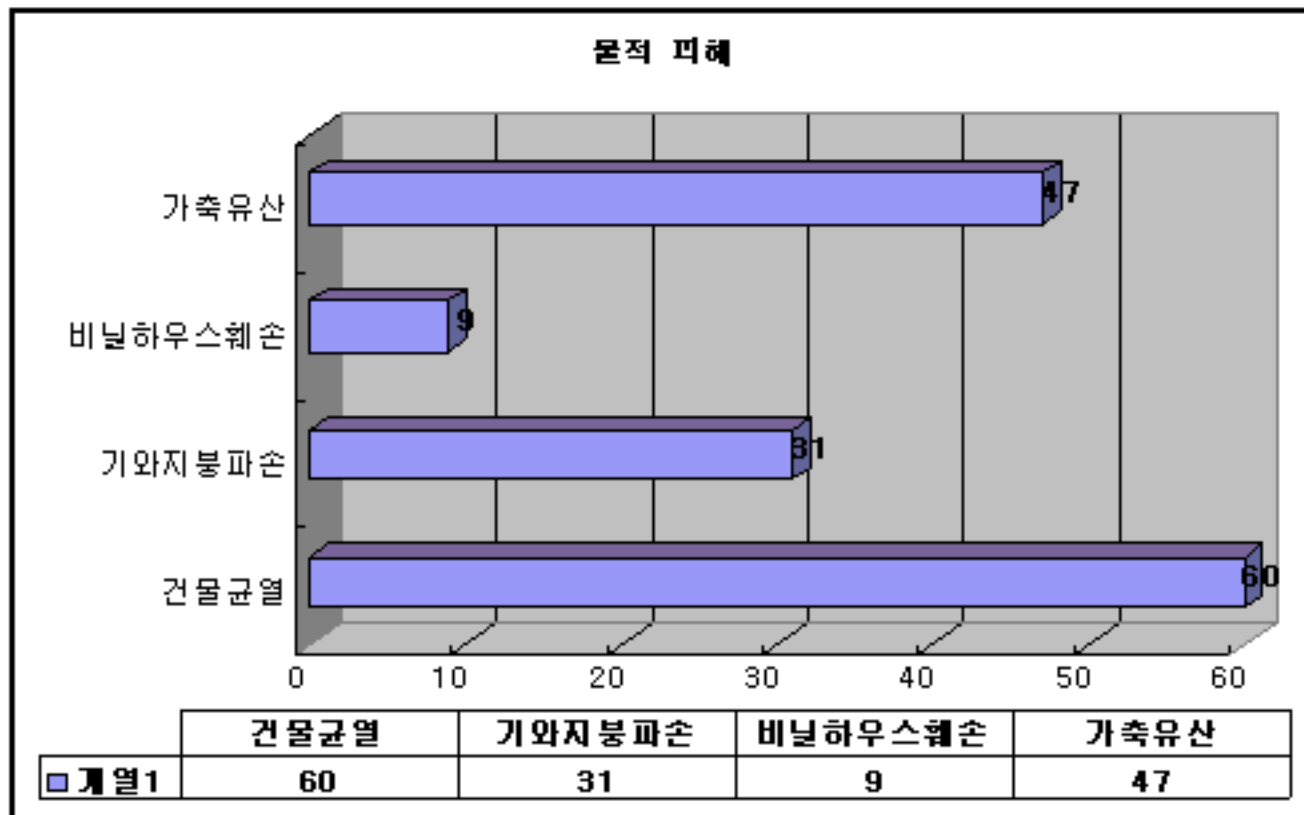
3.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해 76명이 목소리가 큰 편이라고 답변했으며, 73명이 이명 현상이 있다고 답변했다.



4. 사격장 소음 때문에 생기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86명이 추락 사고 등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변, 81명이 정서가 불안하고 집중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했다.



5. 소음, 진동에 의한 물적 피해에 대해 **60명**이 건물 균열을 경험했다고 답변했고, **가축이 유산**한 경우도 **47명**에 달했다.



6. 늘 밤에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이 69명, 수면 방해로 피로가 누적되고 주의력이 저하된다고 **62명**이 답변했다.

7. 기타 건강 피해로는 **두통, 현기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61명**으로 가장 많아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직접 나타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설문 대상자 126명(여성 51명, 남성 75명) 중 여자 29명, 남성 31명으로 **여성들이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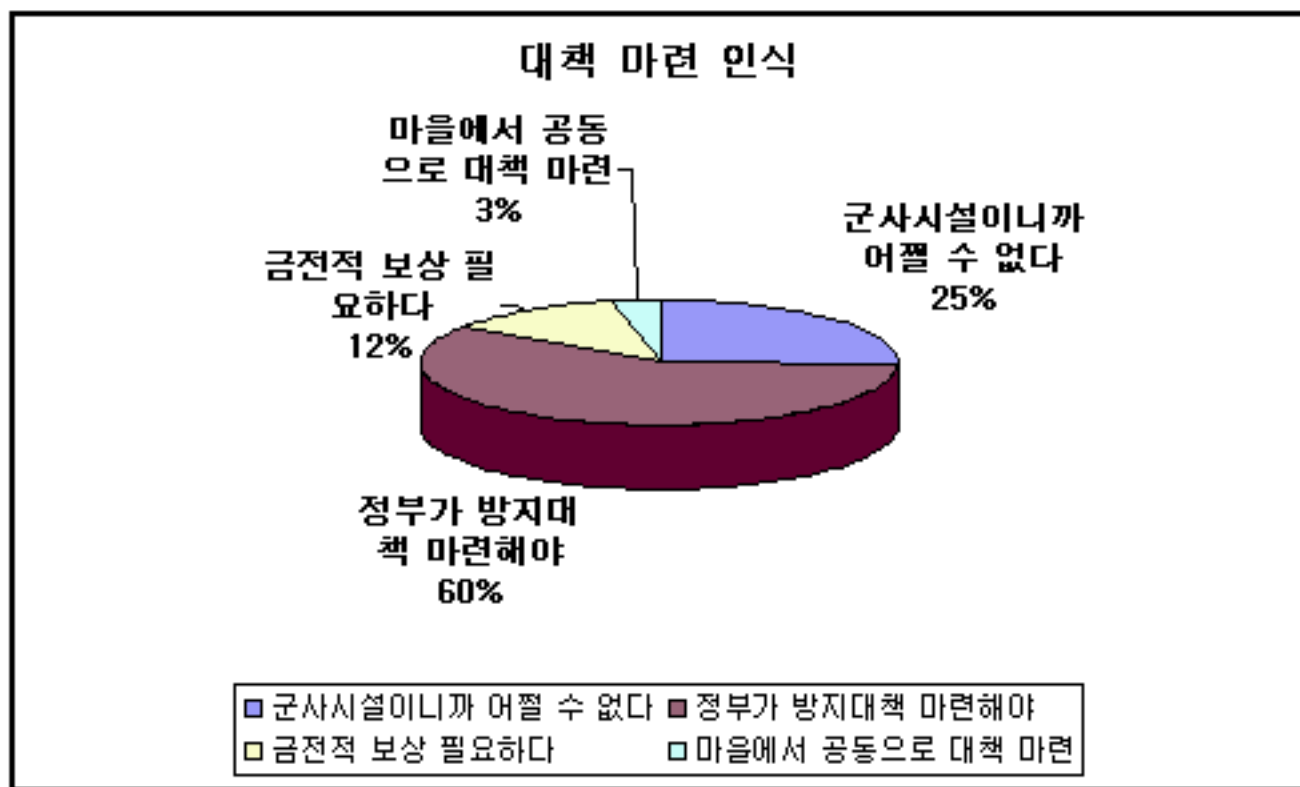
8. 방음 시설이 주택에 설치되었는지에 대해 **98명**이 **방음 시설 없다**고 대답해 소음, 진동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다.



9. 지금까지 가옥 균열 등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 여부에 대해 112명이 금전적 보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10. 사격 훈련 때문에 산불이 난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47명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과거에는 마을까지 산불이 번지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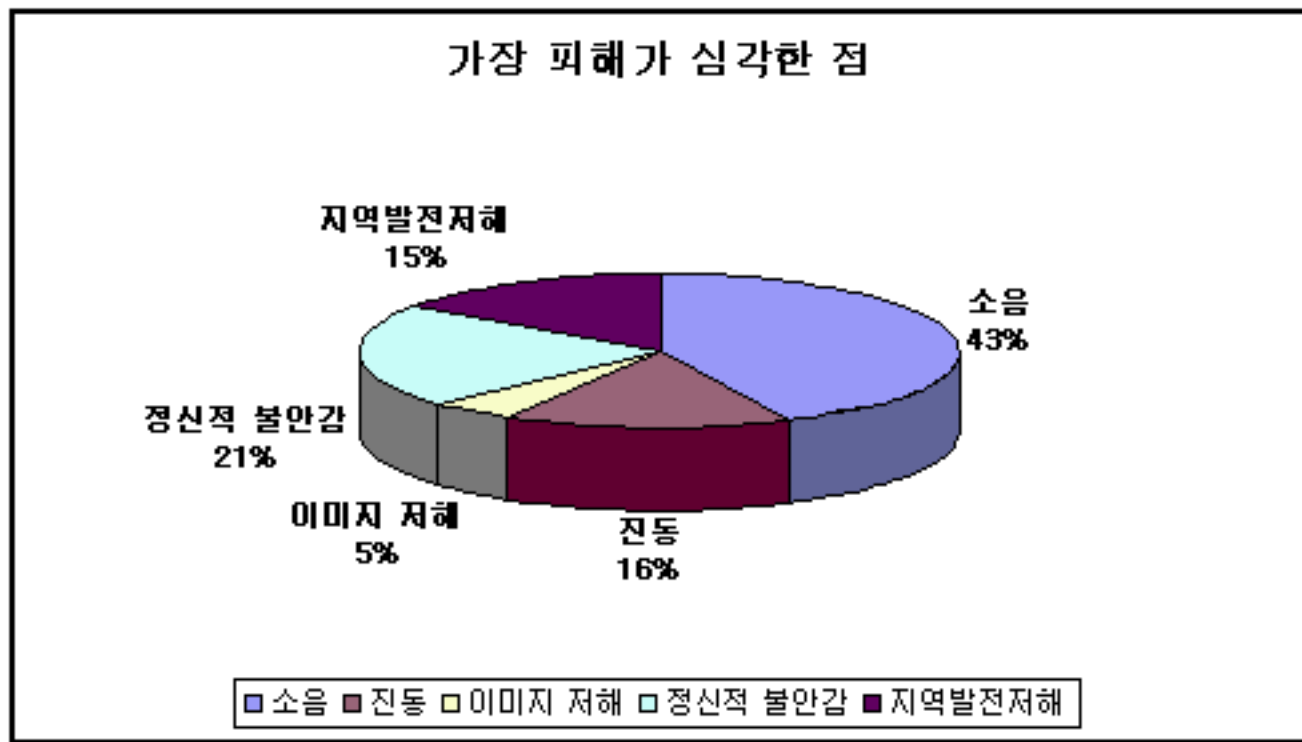
11.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인식에 대해 **70명이 정부에서 적절한 방지대책을 해줘야 한다**고 답변했고, 30명 만이 피해는 있더라도 군사 시설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머지 14명은 어떤 식으로는 개개인에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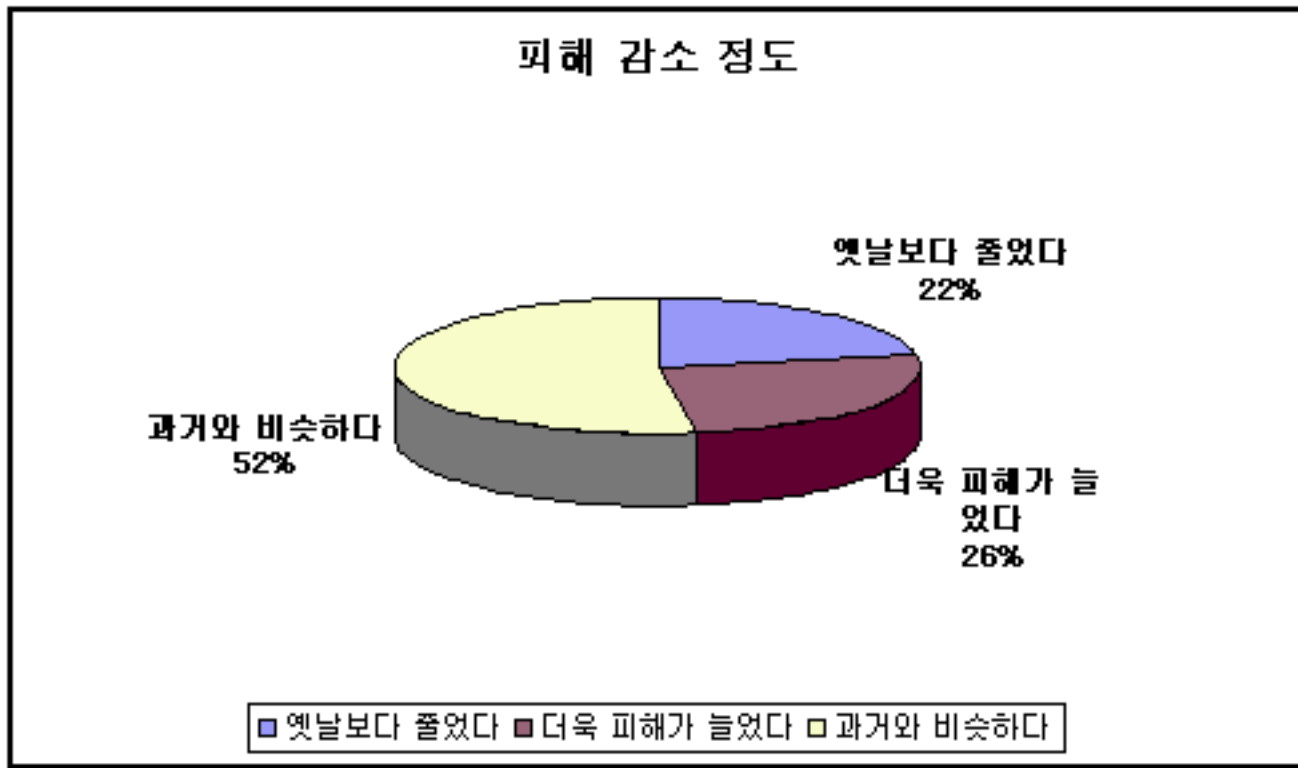
중복 답변을 한 경우, 전체 86명이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59명이 원하고 있다.

12. 자격장 때문에 가장 불편한 점으로 중복 답변이 가능해 전체 210개 답변 중 90개가 소음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45명 답변이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지적했다.

소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음 측정 결과가 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앞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절실하다. “전쟁 피해자나 다를 게 없다”면서 “전쟁 피해자들은 알아주거나 하지, 이런 피해는 어디서 얘기하냐”며 정부의 무대책에 분노를 터트리는 사람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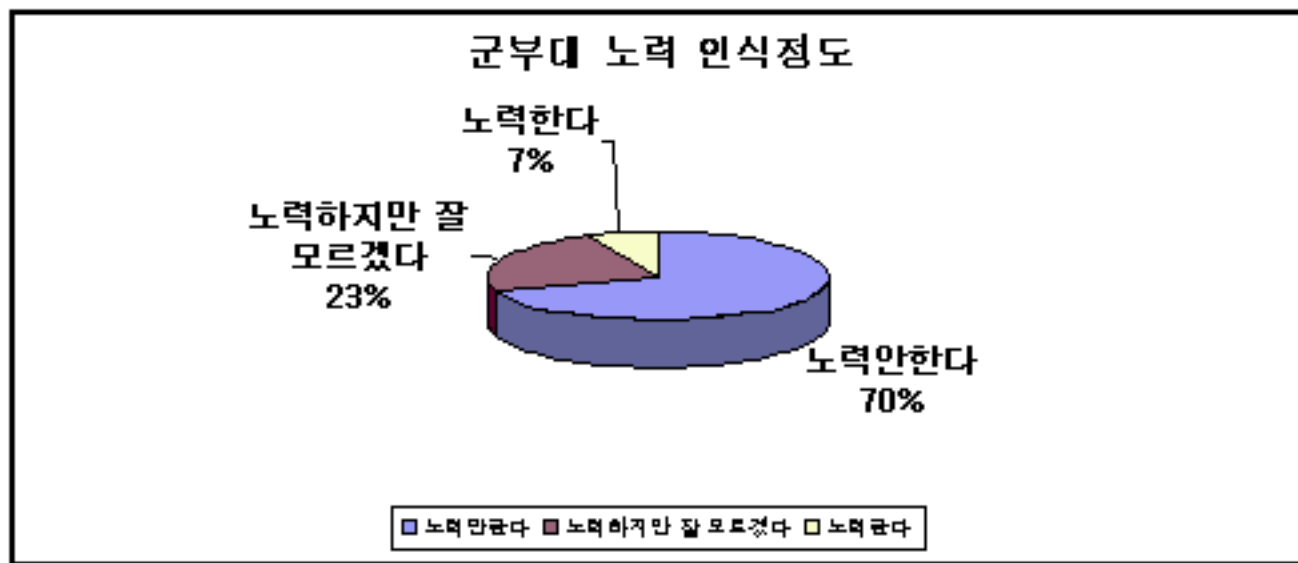


13. 최근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62명이 과거와 비슷하다고 답변하고, 31명은 더욱 피해가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위나 문제제기 후 줄어들었다고 한 답변은 26명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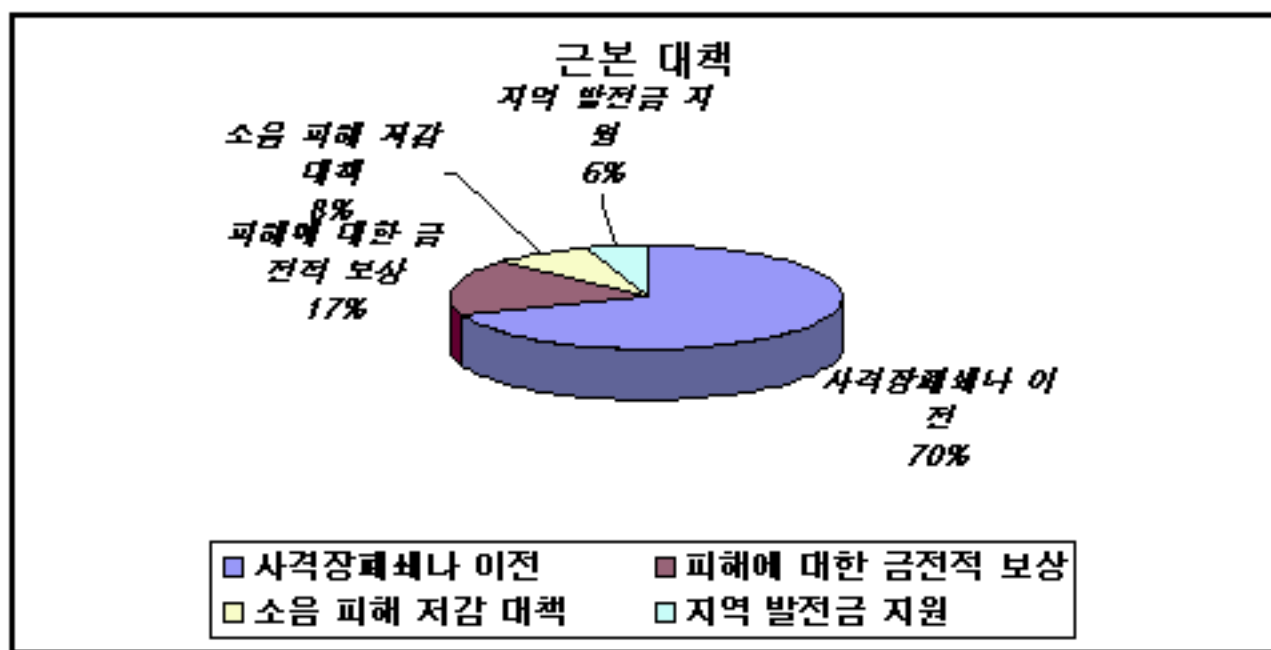




14. 군 부대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82명이 군부대가 아무런 피해 방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안 한다고 답변했다. 27명은 노력을 하겠지만 잘 느끼지 못한다고 했고 ,단 8명만이 노력한다고 답변했다.



15. 사격 훈련 피해에 대한 근본 대책에 묻는 질문에 83명이 사격장 이전, 폐쇄를 꼽았고, 20명은 주민에 대한 금전적 피해 보상, 10명은 피해 저감 대책 등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0명은 지역 발전 지원금을 선택했다.



## 주민 실태 조사, 정부가 나서야

사격장은 대부분 농어촌 마을에 위치해 사회적 발언권이 약한 편이다. 주민들 대부분은 고령자이다. 일부 건강 피해에 대해 난청이나 다른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고령으로 인한 피해와 구분될 수 없어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주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군 부대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월등히 많아 주민들의 불신이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정부의 무대책에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 이전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대책 마련을 위해 기본적인 물적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 실태 조사 주민 설문지

이 설문지는 2007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 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고 맞는 부분에 체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개개인의 실제 사례가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가능한 구체 내용을 자세히 써주시고, 무조건 피해가 많다고 적는 것은 좋지 못하므로 과장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지에 기재된 모든 정보는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이며, 그 밖에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1~ 6번까지는 피해 유형과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고 7번은 주민들의 인식 조사입니다. 빠짐없이 체크하시고 구체 사례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녹색연합

## 1. 기초 사항

항목	내용	비고
나이		
성별		
거주 지역		
거주 기간		

## 2. 거주 시작 경위

1) 거주 시작 시기

사격장 조성 전

사격장 조성 후

\* 사격장 조성 후 이주하신 분의 경우, 다음을 체크해 주세요.

2) 사격장 피해에 대한 사전 인식 여부

거주 시작 이전에는 전혀 몰랐다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지 못했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사 했다

3) 사격장 피해에 불구하고 이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이사갈 곳이 없어서

정부가 적절한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집값이 싸기 때문에

생활 근거지이므로

3. 1차 현장 조사를 통해 사격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열거한 것입니다. 귀하 또는 가족들의 해당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그 정도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다 체크한 후 가장 심한 것을 체크해 주세



요)

1)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피해

- 대화나 전화 통화에 방해가 된다
-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음성 듣기가 어렵다
- 소음 때문에 저녁에도 편히 쉴 수 없다

2)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

- 목소리가 큰 편이다
- 귀에서 매미 소리가 계속 나는 등 난청에 시달린다(이명 현상)
- 귀가 잘 안 들린다
- (※  보청기 사용 여부 )

3)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늘 추락 사고 등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 정서가 불안하고 집중하는데 지장이 있다
- 화를 잘 내고 주민들간 싸움이 많다
- 어지럼증이 생겼다
- 어린 아이들이 무서워 울곤 한다

4) 사격훈련의 진동에 의한 물적 피해

- 사격 소음으로 건물 균열이 일어난다
- 기와지붕이 파손된 적이 있다
- 비닐하우스가 찢어진 적이 있다
- 기르던 가축이 유산하거나 죽은 것이 있다

5) 수면 방해

- 늘 밤에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 수면방해로 피로가 누적되고 주의력이 저하되고 있다

6) 기타 건강 피해

- 두통, 머리가 무거움, 현기증
- 어깨결림등 근육·골격 질환
- 고혈압, 저혈압
- 심장질환
- 천식, 위장 장애(소화불량)
- 노이로제

4.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수리 하거나 병원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유  무

- 있다면 그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

5. 방음시설 관련 대책 등

- 1) 방음시설의 유무 :  유  무
- 2) 방음시설의 설치 주체 :  군 부대  지자체  마을 자체
- 3) 방음시설의 종류와 효과를 기록해 주세요
- 4) 지자체, 군부대 등에서 주민 건강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유  무

- 있다면 그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

5) 지금까지 피해에 대상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유  무

- 있다면 그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 :

6. 기타 피해 경험 여부

- 1) 사격장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었다  유  무
- 2) 사격 훈련 때문에 산불이 난 적이 있다  유  무

3) 사격장 때문에 수질 오염되었다  유  무

4) 사격 훈련하다가 마을에 탄이 떨어져 사람이 죽거나 다친 적이 있다

유  무

### 7.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인식과 대응 여부

1) 군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피해는 있더라도 군사 시설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에서 적절한 방지 대책을 해줘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 주민 개개인에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을에서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 사격장 때문에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소음

진동

군 부대가 있어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

지역 발전 저해

**※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

3) 최근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지요?

시위나 문제제기 후 줄어들었다

더욱 피해가 늘어났다

비슷하다

**※ 줄어들었다면 그 이유를 기록해 주세요**

3) 군 부대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노력 안 한다

노력하지만 잘 느끼지 못한다

노력한다

**※ 노력한다면,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세요**

4) 사격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격장이 이전되거나 폐쇄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음 등 피해 저감 대책 등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마을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



## 제4장

# 국가안보와 주민의 환경권

## 사격장 피해 관련 아무 정책이 없다

지금까지 국방부 등 정부차원에서 사격장 주변 주민 피해 실태나 건강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실태 조사라고 해 봐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음 관련 특별법을 위해 2002년 공군 사격장을 대상으로 소음도를 측정한 것에 그친다. 그나마 그 자료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자체 소음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행 고도가 높아지고 소음 측정에 따라 비행 이착륙 방향이 달라지는 등 소음도를 축소시키려고 한다. 국방부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소음 측정에서 공개까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 광범위한 주민 피해 실태 조사 필요

이번 주요 사격장 주변 주민의 환경권 피해 실태 조사 결과, 예상했던 대로 주민 대부분이 광범위하게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사격장의 소음은 군용 전투기 소음뿐 아니라 사격이라는 요소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 불안이 더욱 심하다. 이미 소음 소송 판결에서도 이런 점이 인정되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난청 등의 조사뿐 아니라 앞으로 주민 정신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면 설문조사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소음 다음으로 불안감을 꼽았을 정도로 과거 추락 사고나 오폭 사고 등의 기억은 오래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진동 피해로 주택 균열이 생기고 주택 지붕이 내려 앉는 경우는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런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고

실태 조사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국가와 군 부대를 불신하게 되고 소외감을 느낀다.

## 주민 환경권 보호하는 법안 필요

2007년 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는 주로 공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실탄 및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보상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미 설치된 공군사격장 또는 설치중이거나 설치예정인 공군사격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소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소음 지역의 등급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경북 상주 출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15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방부의 예산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2005년 국방과학연구소(ADD,이하 국과연)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과연 창설 이후 현재까지 국내 기술개발로 36조 9천 억 원 예산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창설 이후 자체 무기체계 개발비를 포함한 총 비용은 33조7천억 원이고 이를 해외에서 구매했을 경우 64조 9천억여 원이 소요돼 36조9천억 원(운영유지비 5조7천억원 포함)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전투기를 구매하고 군사 기지를 확장하고 있다. 진짜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주민 피해에 눈 감고, 귀 막지 말고 이런 예산을 이용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주민의 권리 보호가 당연한 지자체 역할

녹색연합은 이번 사격장 주변 피해 조사의 일환으로 11월 26일(월) 일본 시의원과 공무원을 초청해 “국가안보와 주민의 권리”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본에서 미군기지를 감시하고 주민의 권리 보호 활동으로 유명한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시의원 가네코 토키오씨와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기지정책부장 야마우치 시게오씨가 참석했다. 두 지역 모두 군사 시설로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하는 곳으로 시에서 소음 측정망을 운영,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군 측에 민원 현황을 매일 보내 항의하고 있다. 민원을 제대로 기록하는 것은 피해 실태를 기록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2005년 기노완시의 후텐마 비행장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한 사고 이후 주민들이 추락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시의원과 지자체 활동의 이유는 다르게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앙 정부에서 본받아야 할 입장이다.

경기도 포천시 경우에도, 지난 2004년 시의회에 군 사격장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초 피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청에서도 담당 부서가 생기는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

## 주민 환경권 , 환경부부터 관심 가져야

국민의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환경권에 관한 정책을 시작할 때다.

웅천 사격장은 소항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인접해 있고, 안흥 종합시험장은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다.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 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 사격장에 대해 환경부가 얼



마나 관심을 기울이는지 궁금하다.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소음 규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방부에 소음 측정 결과만 통보할 뿐이다. 사격장 주변에는 소음 측정망도 없다.

현재 군 훈련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해 해당 화기의 유효 살상반경과 불발탄 및 오발 가능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데 있다. 이 경우 피탄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난 96년 최대 산불로 기록되는 고성 산불은 군 부대 탄약 처리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요평가항목도 사격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질, 폐기물, 토양항목이 필요하며 화약 항목이 추가로 선정되어야 하고, 현재 오염물질에서 제외된 화약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사격장이 신설될 때뿐 아니라 운영시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하고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 **국방부, 사격장 종합 관리 지침 수립 필요**

###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 환경단체가 함께 할 때 의미있어**

다른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격장을 운영하는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가장 먼저 전반적인 사격장 운영에 관련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실태 조사에는 환경 문제 등 주민 피해와 토지 운영 실태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주민들이 대부분 난청뿐 아니라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다.

사격장 내 운영 지침에는 환경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각 부대가 사격장을 이용할 때 세부적인 폐기물 처리 등도 포함해야 한다.

사격장 환경관리지침은 피해 주민과 환경 전문가, 환경 단체 등이 군과 함께 만들 때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현실성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주요 사격장 뿐 아니라 전국에 1,4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사격장이 운영되고 있다. 제대로 된 관리 지침이 없는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이다.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피해가 심각한 사격장 통폐합을 검토해야 볼 수 있다. 사격장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군 전력과 훈련 정도는 주변정세와 국가의 장기 계획에 따라 세워진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사격 훈련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반영되어야 한다. 제대로 따져서 사격장 통폐합 운영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주민들은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곳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나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다.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이제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 전국의 사격장에서 트랙터를 앞세운 주민들에 막혀 사격 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다. 극한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역시 국방의 하나일 것이다.

주민들이 근본 대책으로 사격장 폐쇄와 이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과연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될 일인가. 주민들의 피해를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는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민들의 요구와 상처를 알아야 그 다음 걸음으로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사격장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곧 사선에 내 몰린 것과 같다. 사선에 선 마을의 이야기, 이제 시민단체와 주민,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시작해야 할 때다.

서로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쟁 때문에 어린 아이뿐 아니라 곤충과 야생동물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뜻 생명을 죽이고, 그들의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드는 모든 전쟁을 반대합니다. 생명 가진 것들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대립과 갈등도 반대합니다. 녹색연합은 남과 북, 사람과 자연, 자연과 우주가 모두 풍요롭게,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주소 : (136-821)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3-34**

**전화 : 02-747-8500 팩스 : 02-766-4180**

**이메일 : greenkorea@greenkorea.org**

**홈페이지 : <http://www.greenkorea.org>**

## 도움 주신 분들

서광현 님, 이병욱 님, 이우형 님, 백중현 님, 정연채 님, 박종돈 님, 김남기 님, 김판국 님, 이경로 님, 정희권 님, 박원곤 님, 김원하 님, 김형균 님, 김경미 님, 고정은 님, 오김현주 님, 김지용 님.

바쁜 시간에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녹색연합 소개

녹색연합은 4대 강령 중 비폭력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1996년도부터 군기지 환경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 부대는 군사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 오염에 대한 책임과 복구에 있어서 오랫동안 면죄부를 받아왔다. 녹색연합은 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조사와 감시활동을 통해 오염자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을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녹색연합 4대 강령 중 비폭력 평화의 실현

-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등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야기하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관용과 열린 마음의 형성, 서로의 귀 기울임,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